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리우샤오둥

(劉曉東- 한국어번역논문)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中 科

吳 承 哲

2016年 12月

리우샤오둥

(劉曉東- 한국어번역논문)

指導教授 金 中 燮

吳 承 哲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 年 12 月

吳承哲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6 年 12 月

목차

서문

1 모리(茉莉)

2 리우샤오둥

3 모리(莫莉)

4 등심(等深)

서문

우리 시대의 리우샤오둥

이조우

나는 2012년에 「등심, 等深」, 2013년에 「이미 어두운 밤은 다가오고, 而黑夜已至」와 「모든 길의 끝, 所有路的尽头」을 썼다. 이 세편의 중편소설을 쓸 때, 하나의 시리즈로 엮어 내려갔고 각각의 이야기들은 별개의 것이었으나 서술 분위기는 점차 연관되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리즈의 소설에는 모두 리우샤오둥이라는 공통된 남자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필하의 인물에게 이름을 붙여줘야만 했을 때, 이 중국남성의 흔한 이름은 별 다른 고려 없이 나의 선택이 되었다. 아니, “리우샤오둥”이 내 소설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내가 글을 쓰는 동안 그는 나의 내재적 요구에 완전히 부합했고, 그의 출현은 내 글이 지향하는 바를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심지어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바로, 대중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릴 수 있는 이 중국남성은, 자신의 이름과 같은 평범함과 소박함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보편주의”적 분위기를 실현시켜 주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작가의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간다. 나는 의심할 여지없이 이미 중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체중은 증가하고 심장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 마음을 줄이며 살고 있다…… 기억과 그리움은 의심의 여지없이 필연적으로 내 이야기의 근본적 정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비등했던 과거와 광활했던 풍경은 세월이 거듭되면서 신기하게도 아무 까닭 없이 내 창작에 가장 든든한 정신적 자원이 되었다. 어쩌면 내 삶에 격동의 과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단지, 세월이라는 것 자체가 한 인간을 풍부한 이력의 소유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소설가라면 모름지기 삶 본연의 무상한 감정에 기댈 줄 알아야 하며, 세월이 바로 소설가가 유일하게 본받을 수 있는, 가장 풍만한 보조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소설가는 허구적으로 자신에게 가는 길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하여 소설가는

허구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소설가는 가는 길과 오는 길 사이에서 응시하면서 머뭇거림과 배회의 반경이 비로소 상대적으로 넓어지며 짧은 시간에 모든 곳을 넘나들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공허한, 아무 의의도 없고 혐오스러운 따분한 글을, 부분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다.

우리는 먼지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먼지 속으로 사라진 대다수 침묵자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심지어 나는 그들 중 가시덤불을 헤치고 서서히 나에게 걸어오는 어떤 이를 볼 수 있다. 서서히, 그의 그림자가 모습을 보이고 한걸음씩 다가오며 점차 분명해진다. 그는 중년남성으로 지식인, 교수, 화가이며 자신을 우울증환자라고 자가 진단한다. 그는 목소리가 쉬고 술에 찌들었으며 죄를 짓고 있다. 그는 오늘부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초체함으로 자아심판을 시작한다. 그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리우샤 오동이다.

1 모리(茉莉)

그녀는 내 앞에 앉아있고 우리는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런 장면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맞닥뜨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작은 물결이 일었다. 이는 살아가면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맴돌 때가 있는 것처럼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그녀의 이름은 모리(茉莉)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처음부터 그녀를 이 두 글자로 불렀다 - 모리(茉莉).¹⁾ 그녀는 아마 모를 것이다. 내가 매번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사실 ‘모리(茉莉)’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은 나만의 비밀인 셈이다. 처음에 이 마음속의 비밀은 의심의 여지없이 애정을 내포한 것이었지만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면서 이 애정이 담긴 비밀도 의심의 여지없이 마비되어 버렸다. 그것은 더 이상 마음속에서 나오는 애칭이 아니라 호적상에 반듯이 새겨진 실명과 같았다. 이제, 모리(莫莉)든 모리(茉莉)든 단지 한 여자의 이름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녀를 모리(茉莉)라고 불렀는데 단지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샤오둥, 매번 이럴 때마다 너를 찾아오는 나를 이해해줘. 내가 그들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내 고통을 너에게 털어놓는 게 나에게서 이미 습관이 되어 버린 거 같아……”

나는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도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3년 전 늦은 밤, 전화벨소리에 잠을 깬 기억이 있다. 나는 꿈속을 전전하다가 깨어나 전화를 집어 들어 ‘여보세요’ 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내는 목소리에 당혹스러웠다. 바람이 사포(沙布)를 비집고 지나갈 때 나는 소리처럼 내 목소리는 쉬고 거칠었다. 어찌된 일인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나는 한 여인과 전화통화를 했고 순조로웠다. 나는 나의 온화한 저음의 목소리로 그녀와의 통화를 성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이끌었고 그 분위기를 꿈속까지 연장시켰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내 목소리에 돌연 변화가 생긴 것이다. 나는 내 목소리의 알 수 없는 변화와 그 변화가 가져온 알 수

1) 제스민(jasmine).

없는 의기소침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는 목을 길게 빼고 다시 한 번 ‘여보세요’라고 했다 – 조금 나아진 듯 했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겁에 질려 침대머리맡에 몸을 기대었다. 순식간에 마음이 위축되고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 삶이 은유와 계시로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밤 중 걸려온 전화와 갑작스러운 변성은 나를 음울한 추측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내가 힘껏 기침을 두 차례 하자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그것은 모리의 전화였다. 20여년이 지나, 그녀는 나에게 소식을 알려왔다. “내가 너에게 전화한 건, 저우요젠이 실종됐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야.”

저우요젠은 내 대학 친구이자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조금 전, 즉 3년이 다시 흐른 후, 그녀는 내 앞에 앉아,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나에게 말했다. ‘그녀의 아들 저우상도 3일 전 실종됐다’라고.

“모리,” 나는 머뭇거렸다. “그런 말하지 마, 나에게 이해를 구할 필요 없어. 말도 안 돼.”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난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어. 샤오동, 나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다. 그녀는 정말 미치기 일보직전이었다. 내 말을 끊기 전, 테이블 위에 있던 그녀의 왼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나는 레몬수가 담겨있는 컵을 그녀의 손 옆으로 들이밀었다, “물 좀 마셔, 모리.”

그녀는 가까스로 물 컵을 들고 크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고개를 젓힐 때, 다른 한쪽의 손등으로 내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눈물을 훔쳐냈다.

“네가 나를 찾아온 건 잘못된 게 아니야, 적어도, 모두 털어놓는 것도 좋겠지.”

내가 이렇게 말한 건 단지 그녀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싶어서였다. 나는 줄곧 그녀의 손에 짝 쥐어진 물 컵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지어 그 물 컵이 힘이 가득 들어간 그녀의 손아귀에서 부숴터지는 장면을 이미 본 것만 같았다.

“샤오동, 날 위로하지 마.” 물 컵을 쥐고 있던 손이 다소 느슨해졌지만, 손등 위의 혈관은 여전히 돌출되어 있었다.

“그래, 말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 나는 최대한 말을 가렸다. “일이 어찌면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저우샹이 가출한지 이제 3일 밖에 안됐잖아.”

“3일 밖에 라니!” 그녀는 순간 또 격노했다. “저우요젠도 실종된 게 처음엔 3일이었다가 이제 3년이 됐어!”

나는 그 물 컵을 그녀의 손에서 가로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리 밖에 두었다.

“그건 달라, 모리. 저우샹은 아이일 뿐이야. 너도 알다시피, 남자아이가 그 나이 일 때는 며칠 밖에 나가 실컷 놀아보는 것도 정상이야, 내가 그 나이 때……”

“당시 저우요젠이 실종됐을 때도 너희들은 그렇게 말했었지 — 성인남자가 나가서 며칠 실컷 놀다 오는 것도 정상이라고! 저우요젠 같은 어른도 잃어버리는 마당에, 하물며 개는 아직 어린애야!”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감정 상태에서는 내가 온전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저우샹은 확실히 아직 애야. 키가 크기는 하지만 3일만 지나면 이제야 만 14세야.” 내 대답을 듣지 못하자 그녀의 음성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았고 무심결에 그녀는 손을 뻗어 그 물 컵을 집으려 했다. 순간 나는 내가 그 물 컵을 터무니없이 너무 먼 곳에 치워놓았다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상반신을 완전히 테이블에 엮으려서야 그 물 컵을 집을 수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레몬수는 그녀가 주문한 것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녀는 자극성 음료를 멀리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한 줄기의 혼탁한 강을 볼 수 있었다. 맑은 편 적박한 산기슭은 건물 숲 뒤에 가려져 조금도 아름답지 않았다. 이때는 5월의 마지막 주말 오전 10시로, 지금 이 가게는 우리가 전세를 낸 것과 같았다. 체크무늬 앞치마를 하고 있는 여종업원은 바닥을 닦으면서 가끔 머리를 들었고 얼굴에는 잠에 취해 흐리멍덩해진 눈만 달려있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 저우요젠이 실종됐을 때도 애가 타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절망스럽게 말했다. “샤오둥, 나 정말 절망적이야!”

나는 손으로 컵을 움켜쥐고 있는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마음속으로 남편과 아들이라는 존재가 한 여자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를 헤아렸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었고, 그녀의 절망도 믿었다.

3년 전, 그녀가 한밤중에 재차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여보세요’ 라고 한 마디 하자, 그녀는 전화 속에서 미심쩍은 듯 ‘저……샤오둥 맞니?’라고 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아, 전화를 잘 못 건 줄 알았어. 목소리가 어쩔 이렇게 몰라보게 변했니?”

“어, 나도 놀랐어,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변해버렸어. 근데 네 목소리는 여전하네. 모리 맞지?”

그녀의 목소리가 경쾌해지기 시작했다.

“정말?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응, 정말이야”

마음이 덩달아 밝아졌고 아직 남아있는 잠기와 섞여 끈적하고 달콤한 감정이 생겨났다. 나는 이러한 감정으로 그녀의 모습을 회상했고 마찬가지로 끈적하고 달콤한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얼굴과 몸매, 가슴 골 사이에 흔들리는 십자가, 모두 달콤한 숨결로 아득한 대학시절로부터 내 뇌리로 날아 들어왔다. 지금의 모리는 예전보다 더욱 매력적일 것이다. 진귀한 바이올린처럼, 그 위에서 심금을 울리는 악장을 연주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제 금방 마흔이 되는 그녀의 몸은 이미 세월이라는 대학을 졸업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변화’를 화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모리는 다소 흥분된 어조였고 여자들은 항상 ‘안 변했다’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오래 전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우리는 거의 만나지 않았다. 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단지 상대방의 소재만 알고 있었고 가끔 몇 번 통화한 게 전부였다. 나는 속으로 어렴풋한 불안감이 들었다. 첫째로, 내 목소리는 여전히 이상해서, 마치 유연한 손이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이 거칠진 않지만 공기의 흐름을 막아 내가 내는 목소리가 웬지 모르게 음흉하게 들렸다. 둘째, 늦은 밤 모리와 가벼이 옛 일을 회상하자니, 어색한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을 때, 그녀는 돌연 침묵했다.

“아. 이제 생각났어. 내가 너에게 전화한 건, 저우요젠이 실종된 걸 알려주고 싶어서야.”

그녀는 흐리멍덩하게 말했다.

“실종됐다고? 누가? 저우요젠 말이야?” 나는 어렵게 되물었다.

“응, 흔적도 없이 회사에서 사라져버렸어……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벌써 3일이 지났어.”

당시 그녀의 말투는 잠꼬대와 같았고, 결코 지금과 같이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불 속으로 움츠러들었고 터무니없는 행복감은 홍수처럼 빠져나갔다. 그래, 그렇지, 어떻게 저우요젠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는 나의 오랜 동창이자 예전에 친구였던 모리의 남편 아닌가. 어색함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홍수가 지나간 후 폐허가 드러난 것 같았다. 모리는 자신의 목적을 밝히자 금세 풀이 죽었고 이어서 목소리도 변화가 생겼다. 말투는 TV속의 아나운서가 된 듯 중성화 되고 또박또박해져 내가 알고 있던 모리와 연관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 모리는 내 집으로 와서 저우요젠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했다.

“너, 괜찮겠니?”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나? 지금? 괜찮아, 괜찮아. 그럼 여기로 와.”

이 때,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눈치 챘는지 그녀는 다소 불만스럽게 손을 내 손 밑에서 빼내고는, 테이블을 짧게 두드리며, “이미 신고했어, 학교에도 상황을 알렸고.”라고 말했다.

“그들이 뭐하고 말하던?”

“뭐라고 했냐고? 너와 완전히 똑 같은 말! - 남자아이가 그 나이일 때는 나가서 며칠 실컷 놀아보는 것도 정상이라고!”

나는 창피해서 어깨를 들썩였다. 왜 창피할까? 단지 내가 뜻밖에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아마도 수치심 때문에 순간 나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모리, 생각 좀 해봐. 이럴 가능성도 있어.”

나는 조금 흥분됐다.

“저우요젠이 돌아와서 그들 부자가 서로 연락이 된 거야. 그리고는 저우요젠이

아들을 데리고 바람을 쐬러 간 거 아닐까?”

그녀는 무뚝뚝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이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야 - 저우요젠이 돌아왔다면 분명 제일 먼저 아들을 찾으러 학교로 갔을 거야. 부자는 학교 앞에서 부둥켜안고 흥분된 마음을 안고 밖으로 며칠 놀러 가기로 한 거지. 저우요젠은 아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서둘렀을 거야. 너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흥분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빠뜨리기 십상이지. 그래서 그들 부자는 네가 불안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야.”

내가 먼저 흥분해서 이것저것 빠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나를 바라보며 손 안의 물 컵을 돌리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그녀가 언제든 손을 들어 남아 있는 반 컵의 물을 내 얼굴을 향해 뿌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은 나를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입을 열지 않고 그저 내 스스로 입을 다물게 내버려두길 바랐다. 그러나 그녀 앞에서 이런 행운이 일어날 리 없었다.

“그만해, 샤오둥, 그만 됐어.”

나는 뒤쪽 소파의 등받이로 물러앉으며 깊이 한 숨을 쉬었다.

“알았어. 모리, 우리 이번 일을 잘 좀 정리해보자.”

그녀는 오히려 침착했다. 여전히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물 컵을 돌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연민스럽기 짝이 없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한잔 더 주문했다. 비록 기세 있게 들이켰지만, 모리의 그 레몬수는 영원히 다 비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정리’를 좀 해보니, 나는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저우샹, 성적이 우수하고 불량한 습관이 없으며 성격 또한 괴팍한 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3년 전 부친이 실종됐다는 사실은, 그의 성장에 눈에 띄만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3일 전, 이 남자 아이는 집을 나가 버렸다.

“아이는 방과 후에 우선 집에 돌아왔어. 저녁 무렵에 저우샹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경비가 내게 말해줬어. 그리고 나도 아이가 집에 왔었다는 것을 확신 했어. 냉장고에 있던 소시지가 거의 다 없어졌거든. 아이가 집을 나갈 때, 책가방도 메고 갔어. 안에 있던 책들은 모두 집에 나두고 말이야. 그 날 숙제도

다 끝냈어. 맞아, 내 핸드폰도 하나 가져갔어.”

“핸드폰? 번호가 없는 거야?”

“카드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거야”

“그 핸드폰으로 전화해보지 않았어?”

그녀는 대답 대신에 몸을 돌려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고는 스피커 통화를 켜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핸드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흘러나왔다.

“죄송합니다. 전원이 꺼져있습니다.”

나는 또 다시 어안이 빙빙해졌다. 왜 핸드폰을 두 대나 쓰는지 궁금했다.

“몇 시에 집에 갔어? 그러니까 경비가 아이가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을 본 후부터 네가 아이가 가출한 것을 알아채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되지?”

“음, 아마 5시간쯤 될 거야.”

“5시간이라.”

나는 이 시간을 저울질해보는 것처럼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속으로 계산해보았다. 해질 무렵부터 5시간이 지났다면 몇 시가 될까? 그녀가 난처해하는 기색이 보였다.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집에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게 아이가 가출한 이유는 아니야. 확실해.”

“확실하다고? 근데 아이가 가출한 이유는 모른다는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소시지가 거의 다 없어졌다……. 그럼, 평소에 저우상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저녁을 챙겨 먹는 거야?”

“무슨 뜻이야!” 그녀는 소리쳤다. “내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서 애가 가출했다는 말이야?”

“아니, 물론 아니야.” 나는 곧 후회했다. “나는 단지 상황을 좀 더 완전하게 알고 싶을 뿐이야.”

“샤오둥, 이런 건 묻지 말아줘. 나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모든 이들이 그렇게 생각해. 아이 아빠가 사라지고 내가 애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봐, 뻔히 보이는 얘기야. 하지만, 너는 그 ‘모든 이’들이 아니라서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샤오둥, 너는 그렇게 나를 간단하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모리. 믿어줘. 나는 이번 일을 너의 탓으로 돌릴 뜻은 조금도 없어.”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모자간의 애정은 다른 모자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는 걸 믿어줘. 저우샹은 나를 정말 사랑해. 어떨 때는 심지어 나를 가엽게 여겨……”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건너가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든가 아니면 적어도 티슈라도 그녀에게 건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이번 일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 나는 저우샹이 철이 든 아이라고 믿었다. 아이는 모친을 사랑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 가엽게 생각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그의 실종을 돌연 걱정스럽게 만들었다.

“아이가 이렇게 철이 들었으니, 좀 안심해도 될 거야. 핸드폰까지 가져간 건 아마 너와 연락하기 위해서일 거야.”

“그럼 왜 핸드폰을 켜놓지 않는 거지?” 그녀는 얼굴을 가린 두 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나와 숨바꼭질하는 건 아니겠지? 이 모든 것이 단지 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어찌 감히 이번 일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전부 놀이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앞에 이 여인은 내 마음 속에서 모리(茉莉)라고 불린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그녀의 남편은 3년 전 소리 없이 사라졌고, 당시 모두들 이런 구실을 들어 그녀를 설득하려 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놀이는 너무 지나치게 길었다. 놀이가 시작되고 3년이나 지났고 지금까지도 결말은 막연하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그녀에게 ‘자기야, 놀이가 또 시작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순간 내가 보기에, 내 앞의 이 중년여성은 광야에 내던져져 눈을 가린 채 자신의 가족을 찾아 두 손으로 사방을 더듬거리고 있는, 슬픈 운명의 ‘숨바꼭질’ 놀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아이들이란 게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짐작하기 어려운 법이야. 하지만 내 직감으로는 저우샹은 분명 무사하게 돌아올 거야.”

“정말?”

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는 듯 했으나 여전히 간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 일은 나에게 맡겨.”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내 자신도 몰랐다. “어찌 되었든, 너에게 답을 주겠다고 약속할게.” 사실 하마터면 그 다음 말이 튀어나올 뻔 했다. 나는 ‘살았던 죽었던 너에게 데려올게’라고 말하고 싶었다.

“샤오둥, 고마워,” 그녀는 다시 침울해졌다, “너의 이 말을 들으니 한결 위안이 됐어.”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가 내 약속을 단지 위안으로만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말을 뱉고 나니, 내가 한 약속이 방금 그녀의 핸드폰에서 흘러나온 그 여성의 목소리처럼 공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일만 더 지나면 아들의 생일이야.”

“어쩌면 아이가 그 날 돌아올지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그게 지금 내 유일한 희망이야.”

“아이가 이 시기를 골라 가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아마도, 아이가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작은 계획 같은 것 말이야.”

“아, 계획이라……”

“물론,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아는 게 없어. 하지만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믿어야 해.” 나는 화제를 돌렸다.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평소에 아이와 어떻게 생일을 보냈어?”

“평소에?”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생각했다. “거의 집에서 보냈어. 케이크 하나 사고, 거기에다 시계, 운동화 같은 선물을 해줬어.” 그녀의 눈이 나를 한번 바라보고는 재빨리 다시 밑으로 향했다. 급히 뭔가를 감추려는 것 같았다. “특별한 건 없었어, 아이는 자신의 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

나는 또 참지 못하고 질문했다. “너는, 대수롭게 생각했니?”

“샤오둥, 인정해, 내가 엄마로서 그런 기념일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는 걸. 그래, 여러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그냥 대충 지나쳤어.”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게 우리의 비애야. 그렇지 않니? 이전에 영원히 기억 속에 새겨질 줄로만 알았던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결국 모두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니?”

그녀가 화제를 바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확실히 어떤 진리에 들어맞는다고 느꼈다. 우리는 이렇게 대강대강 일을 해치우고, 이렇게 쉽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곤 한다.

“내일 아이 학교에 가서 실마리를 좀 찾아볼게. 선생님과 아이 친구들을 좀 만나 봐야겠어.” 나는 잠시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두었다. “물론, 네가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시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 아마, 내가 방향이라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샤오둥, 네가 이렇게 나서주니 감동이야.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그저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고 싶어서야. 난 현실과 동떨어진 부담으로 너의 어깨를 짓누를 만큼 황당한 사람은 아니야.”

“이해해.”

“아니, 너는 이해 못해. 사실, 뭐라고 할까, 너는 이제까지 날 이해한 적이 없어.”

“모리”

“어떨 때는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 방금 내가 아이의 이번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너의 말을 부정했지만, 사실 나도 그건 자신을 속이는 짓이란 걸 알아.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간 게, 아이의 엄마로서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 있겠니?”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더 할 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생일 얘기를 했었지, 3년 전 아이 생일 때 같이 여행을 갔었어.” 그녀가 말했다.

“어디를 갔어?”

“시안(西安)”

나는 속으로 묵묵히 계산했다. - 3년 전, “그 때는 저우요젠이 아직 집에 있었지? 내 기억으로 저우요젠은 9월에 집을 나갔어. 그럼 너희 같이 시안에 간 거야?”

“아니, 나와 아이만 갔어.”

“어, 저우요젠은 왜 같이 가지 않았어?”

“너도 그 사람 알잖아. 물어볼 필요 있니?”

너도 그 사람 알잖아 – 나는 저우요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우요젠은 어떤 사람인가? 3년 전 그날 밤, 전화를 내려놓고 나는 멍해졌다. 모리가 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 내 머리 속은 한 남자의 분노의 고함소리로 점점 가득 찼다. 그렇다, 저우요젠은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갑작스럽게 침묵 속에서 버럭 화를 내며 삶에 대해 격렬한 호통을 친다. 그는 너그럽지 않다, 조금도 너그럽지 않다.

대학 시절, 한 번은 저우요젠과 함께 점퍼를 사러 거리로 나섰다. 모리도 같이 있었는데, 당시 그녀는 내 여자 친구였다. 셋은 거의 도시의 절반을 돌아다녔지만 맞는 옷을 사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우요젠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점퍼들이 비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저우요젠이 자신의 그 쭈글쭈글해진 점퍼를 벗고 입기를 반복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매번 반복되는 그 동작은 저우요젠에게는 잔혹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끊임없이 옷을 풀어헤치고 자신을 까발려야만 했다. 몸에 바짝 들러붙은 러닝은 원래 흰색이었는데도 몰라 볼 정도였고, 가장자리가 닳아 헤진 갈색 허리띠 속으로 쭈셔 넣어져 있었다. 그 모습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팠다. 저우요젠의 안색은 점점 불쌍사나워졌다. 회색에서 백색을 거쳐 창백해졌다. 이마에도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아마도 모리를 불러내지 말았어야 했다. 그녀가 있어서 저우요젠이 더욱 난감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모리의 안색도 창백해진 것이 보였다. 나중에 나는 이 두 사람이 아마도 이미 나를 배반했을 것이란 추측을 했다 – 나는 낚시를 알아차렸다. 그래서 모리를 불러냈고 그것은 단지 그녀가 저우요젠의 망측한 꼴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지어낸 얘기겠지? 학창시절 나는 이 정도로 지혜롭지 않았다). 나중에 길가의 한 작은 가게에서 저우요젠은 절망에 빠졌다. 그의 낡은 점퍼의 지퍼가 고장 나버린 것이다. 맨 아래쪽에 끼어 아무리 애써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를 딱 깨물고 눈이 다 빨게 지도록 지퍼를 위로 힘껏 잡아당겼다. 그 모습은 정말 안쓰러웠다. 세상이 보잘것없는 지퍼 하나에 끼어 들연 멈춰버린 것 같았다. 지퍼와 한참을 씨름하던 저우요젠은 갑자기

한쪽을 응시했다. 나와 모리도 그가 응시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뒤쪽 편에 한 쌍의 연인이 세상을 다시 움직였다. 그들은 다투고 있었는데, 대략 여자는 이런 길가의 가게에는 좋은 옷이 있을 리 없고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원망하고 있었고, 남자는 어쩔 줄 모르며 잘 못 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그게 뭐 볼거리라도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우요젠은 뜻밖에도 고함을 내질렀다. 고함소리가 날카롭고도 기이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그 낱아빠진 지퍼를 포기하고 한 걸음에 앞으로 나아가 타협을 하고 있던 그 사내를 향해 분노에 찬 고함을 내질렀다.

“당신이 뭘 잘 못 했는데? 뭘 잘 못 했냐고! 이런 길거리 가게에 들어온 게 잘못 한 거야?”

저우요젠은 돌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에 돌이 걸린 것처럼 딱 틀어 막혔다. 그의 눈썹과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고 목소리는 뱃속에 가둬져 부글부글 끓어올라 마치 폭탄이 폭발하기 전 위력을 품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도저히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저우요젠을 저지하려고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대자, 그는 쿵 하고 쓰러졌다. 몸은 뻣뻣하게 굳어있었고 두 손은 경련을 일으키며 목을 잡고 있었다. 마치 스스로 목 졸라 죽으려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혼비백산했다. 쪼그려 앉아 그에게 바짝 다가간 나는 더욱 놀라 소스라쳤다.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입술은 번개가 치는 것 마냥 눈 쉴 틈 없이 열고 닫혔다. 나는 그의 두 손을 잡고 벌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두 손을 목에서 떼어내 그의 뱃속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려고 했지만 그의 두 손은 단단한 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가 목구멍을 비집고 새어 나왔고 하수관이 막 뚫릴 때 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저우요젠 - ” 모리가 절망스럽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저우요젠의 두 손은 신기하게도 힘이 풀렸다. “어 - 당신이 뭘 잘 못 했냐고……” 그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늙은 개처럼 쇠약하고도 괴상했다. 그 소리는 줄곧 나의 기억 속에서 맴돌았고 3년 전 그 날 밤에 다시 떠올라 내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확실히, 그들 서로는 오래 전부터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저우요젠이 부르짖고 있을 때, 모리는 천사의 행렬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한 마디 대답의 외침이 그를 구출해 낸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그들은 같은 길을 걸었다. 나는 친구와 연인을 한꺼번에

없었다. 원래 저우요젠은 간질을 앓고 있었다. 이 고질병은 애초에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인데 모리에 의해 재발하게 되었다. 만일 그 날 그녀가 옆에 없었더라면 저우요젠은 굴욕감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테고 최후의 외침을 내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 저우요젠은 빈번하게 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침묵 속에서 돌연 심한 소리를 내질렀고 한두 가지가 아닌 주위의 각종 잘못들에 대해 흥분되고 격앙된 어조로 호통을 치고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는 이 때문에 졸업을 못할 뻔 했다. 그가 모리를 제외한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통을 쳐댔기 때문이다. 연단 위에서 발표하는 학교 주임과 식당을 시찰하는 교장을 비롯해 어떤 이든 발언을 한다면 그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힐 가능성이 있었다. 졸업을 앞둔 그 해 여름, 한바탕 폭풍우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사회를 향한 외침을 소임으로 삼던 이 사람은 그 보다 더한 폭풍우 앞에서 있었고 끊임없이 길가에서 졸도했다. 저우요젠은 평소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더욱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그 소음을 덮어버렸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리에게는 그와 함께 할 이유, 심지어 의무가 있었다. 당시의 이상주의 시대에 나는 그러한 이유와 의무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저우요젠처럼 모든 세상과 대립할 수 있을 정도로 모리를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여겼다. 나는 단지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배반했고, 그리고 어디까지 나를 배반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었다.

내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모리가 아직 내 연인이었을 때, 그녀의 나에게 대한 거센 저항이었다. 손으로, 발로, 한 번은 심지어 이빨로. 그녀는 단지 나에게 그녀의 가슴만을 허락했고 다른 것은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그녀와 1년 넘게 사귀는 동안, 그녀의 몸에 대해, 딱 움켜쥔 두 주먹 같은 유방, 그리고 가슴 가운데 걸려있는 십자가 - 모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 - 밖에 기억이 나질 않았다. 두 개의 유방이 십자가의 양옆에 달려있을 때, 그것은 단지 유방일 뿐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하나는 죄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별이 된다. 내 아버지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었고 나는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을 테스트하는 요란한 소리 속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나에게 있어 모리의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이올린과 같아, 어떻게 쳐도 난해하기만 했다. 실연하고 나서, 내가 가장 상상하기 싫었던 것은 모리라는 그 바이올린을, 어쩌면 저우요젠이 예전에 이미 조

화롭게 연주했을 것이라는 거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증오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자들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한 동안 나는 여자들을 멀리했다. 나중에는 점점 가까이하게 되었지만 그저 그녀들과 잠자리만 가졌을 뿐이다. 몇 번은 내게 저항하는 여자들을 만났지만 나는 강경하게 대응했고 결국 내가 원하는 데로 되었다. 애초에 모리에게도 그렇게 강경하게 했더라면 그녀의 저항은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왜 모리에게 강경하지 못했을까?

3년 전 모리를 기다리던 그 밤에 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며 마음 아파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우리에게 음식을 주문할지를 물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 때가 되었다. 나는 모리의 생각을 물었다. “뭐 좀 먹어야지?”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점심 먹을 시간이야.” 사실 나도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어쨌든 밥은 때가 되면 먹어야 해.”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밥이 목에 안 넘어가. 3일 동안 거의 한 입도 먹질 못했어.”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3일을 굶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저 약간 초췌해 보였고 눈꺼풀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뭘 좀 먹으려고 할 때마다 저우상은 밥 먹었을까 라는 생각이 항상 떠올라.”

“아, 그래, 저우상한테 돈은 있어?” 내가 물었다.

“어, 카드를 하나 갖고 있고. 평소에 용돈을 그 카드에 넣어줬어. 인터넷 banking도 할 수 있어서 조회해 봤는데 아직 잔고가 몇 천 위안은 있었어.”

“요 3일 동안 아이가 지출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니?”

“3일 동안 카드를 쓰지 않았어. 하지만 집을 나설 때, ATM기에서 5천 위안을 인출했어.”

“그것 봐, 모리. 저우상은 모든 것을 조리 있게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어. 그렇다면 일이 저우상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야.” 나는 계속해서 낮게 읊조렸다. “물론 저우상은 아직 만 14세도 안 된 어린아이지만, 요새 아이들은 어떨 때는 상상 이상으로 노련하기도 해. 저우상은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볼 거야. 심지어 우리가 돌보는 것보다 더욱 더 세심하게.”

“그러기만을 바래.” 그녀는 고민에 찬 소리로 말했다. “근데 나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원인을 추측할 수는 없어. 사실을 가정할 수 있을 뿐이지. 하지만 그 사실은 낙관적이라고 생각해. 그 말은 이 아이가 어떤 위험에 처하진 않았다는 거야.”

그녀는 내 말에 수긍하는 것 같았다. 나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또한 야채비빔밥도 받아들였다. 나는 소고기볶음면을 주문했다.

“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녀는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다. “샤오둥, 괜히 네가 나 때문에……”

“괜한 생각하지 마.” 나는 머리를 들어 그녀를 응시했다. 나는 인정해야만 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녀는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여자였다. 그녀의 피부는 결코 흰 편이 아니지만, 내 눈에는 검은 피부가 더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밥 먹는데 몰두했다. 후추의 매운 맛이 느껴지는 와중에 3년 전 그 밤의 기억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나는 서른 남짓에 교수가 되었다. 주위에 여자가 많았지만, 그 때 나는 여전히 독신이었고 단지 ‘샹위엔’이라 부르는 파피용 개 한 마리를 길렀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대학시절이 내게 남겨준 후유증으로 여겼다. 3년 전 큰 비가 막 그친 그날 밤, 모리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깊은 잠에 빠졌던 샹위엔은 놀라서 깨어났고 스트레스를 받아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이윽고 분노가 극에 달해 발광하며 문 앞을 가로 막고는 문 밖에 있는 그녀를 향해 목청껏 짖어댔다. 나는 부득이 샹위엔을 베란다로 밀어 넣고 가두었다. 샹위엔은 베란다에서도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짖는 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져 어두운 밤을 더욱 검게 만들었다. 모리는 어깨끈이 좁고 하단이 넓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열은 커피색으로 그녀의 피부색과 어울렸다. 그 모습이 마치 우아한 바이올린이 하나가 어두운 문틀에 꽂혀있는 듯 했다. 우리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 마주치던 그 때, 누구도 어색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내 눈에는 지금의 모리가 늘씬한 허리에 마침내 성숙해진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모리의 눈에 지금의 나는 얼굴이 움푹 꺼지고 아랫배가 나온 그 나이대의 모습일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여한이 없을 연주를 했다. 그 십자가는 모리의 가슴에서 사라졌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신앙을 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유방은 이미 진정으로 명실상부한 유방이 되었을 것이다. 뻗뻗해진 유두는 짙은 갈색을 띠었고 그녀의 몸은 바이올린처럼 늘씬했다. 울려 퍼지는 연주 소리는 신비로운 햇살처럼 나를 휘감았다 - 사실 일체 아무런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나는 그녀의 오르내리는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의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단지 베란다에서 상위엔의 비통한 울음소리만 여기저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나에게 불가사의한 환각을 불러 일으켰다. 상위엔의 울음소리가 내 몸 아래의 모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들렸고 나는 한 마리의 파피용 개와 성교를 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나는 한 편의 처량하고도 매혹적인 악장 속으로 빠져 들어갔고 온 세상이 거대한 교향악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전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내가 문을 닫고 몸을 돌렸을 때, 그녀가 내 뒤로 바싹 붙었다. “나 너무 외로워.”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머리가 내 가슴에 닿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끌어당겼고 부드럽고 편안한 가늘고 긴 그녀의 손가락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올랐고 침실 곳곳에서 새어 나온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연주가 끝난 후 나는 생각했다. 만약 이번에도 모리가 여전히 나를 거부했다면, 손으로, 발로, 이빨로…… 내가 강경하게 대응했을까? “너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근데 갑자기 너희들이 그리워서…….” 그녀는 내 가슴에 기댄 채 말했다. 나는 그녀가 “너희”라고 말한 것을 알아차렸다. “나 너무 무서워…… 저우요젠이 떠나기 전에 식탁 위에 컵 하나를 올려놨는데 내가 그것을 깨뜨려버렸어. 그 전에는 손을 안 대고 그냥 거기 원래 위치에 내버려두었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컵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손을 대자마자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컵이 깨지는 소리를 듣지 못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혼자 중얼거리는 듯 너무 낮았고 상위엔의 난폭하게 짓는 소리에 묻혀 거의 수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최대한 귀를 기울였지만 대강의 내용만 알아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말은 대충 이런 내용이였다. 저우요젠이 3일전 갑자기 종적을 감췄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추측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세상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저우요젠이 다니는 회사의 상사도 몹시 놀

라워했다. 그의 고향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소식을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무리의 가난한 친척들이 그녀에게 사람을 찾아내라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이미 경찰에 신고는 했고, 심지어 병원의 영안실로 가서 찾는 사람이 없는 버려진 시체까지 식별작업을 했다. 모리는 꿈속에서 아직 살아있는 그를 봤는데, 또 병이 재발해 그녀를 향해 포효를 하고는 입에 거품을 물고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버렸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뭔가를 물어보고 싶었고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직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쉬고 거친, 바람이 사포를 비집고 스쳐 나올 때 나는 소리와 같은, 내 스스로 낮설게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내뿜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질문들을 목구멍 너머로 삼켰고 점점 현기증이 몰려왔다. 대체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모리의 머리가 내 가슴을 눌러 숨이 막혀서 그런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잠이 들려고 했다. 잠이 들기 전 내일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할지 걱정이 되었다. 교수로서, 언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나는 귀를 찌르는 듯 내지르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깼다. 모리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단정한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가 잠을 깬 것을 보고 그녀는 몸을 일으켜 작별 인사를 했다. “잘 잤어? 나 갈 게.” 나는 그녀를 문 앞까지 배웅했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바로 베란다로 향했다. 상위엔은 베란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나를 보자 울음을 푹 그쳤다. 내가 녀석을 끌어안아 보니 입가의 몇 가닥 흰 수염에 핏방울이 맺혀있었다. 상위엔은 그렇게 목이 찢어지도록 격앙되고 분하게 오랫동안 짊어왔던 것이다 – 만약 녀석이 소리를 지르면 누가 천사의 행렬 속에서 그것을 들어줄 것인가? 나는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밤안개가 아직 가시지 않아 세상이 시간을 초월한 태고의 황야에서 응고되어 버린 것만 같았다. 모리가 은색의 푸조(PEUGEOT)차에 올라타는 것이 보였고 차는 한참이 지나서야 시동이 걸렸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TV를 켰다. 첫 프로그램이 방금 시작했고 TV속의 단정한 여자 아나운서는 흔적 없는 미소로 말했다. “안녕 하십니까……” 목소리가 모리와 상당히 비슷했다.

우리가 헤어질 때는 시간이 아직 일렀다. 나는 모리가 떠나는 것을 목송하고는 카페에 잠시 더 앉아있었다. 나는 길가의 창문으로 또 다시 그녀가 그 은색의 푸조차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다. 차에 시동이 걸렸고 엔진 소리는 미약하고 힘이 없어서 3일은 굵은 사람과 같이 느껴졌다. 차의 여주인은 곧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나 아직 걸으려는 강한 면모를 유지했지만, 이러한 여주인이 몰고 있는 그 차는 결국 본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여종업원이 결재를 하려고 다가왔다. 그녀는 당연한 듯 2위안을 깎아 주겠다는 혜택을 들어 나에게 영수증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200위안도 되지 않는데요.” 그녀의 뜻은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간간하게 정식절차를 요구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진지해졌다. 나는 갑자기 반듯하게 살고 싶어졌고 대충대충 얼버무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영수증을 요구했다. 그녀가 가져온 영수증을 받아보니 200위안이 찍혀 있었다. 이 역시 대강대강,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내가 어떻게 초과된 차액을 그녀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 우리는 무질서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나는 빈허강 길을 따라 되돌아갔다. 란칭(蘭城)시는 한 줄기 강에 의해 둘로 나뉘었다. 강의 양안을 왕복할 때 마다 나는 어떤 ‘고비는 넘기는’ 심정이었다.

강을 따라 걸으니 3년 전 발생한 그 일이 내 마음 속에서 재연되기 시작했다. 나는 은유와 계시가 풍부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지금 나는 추억 속에서 삶의 허점을 포착하길 기대하고 있다. 추억은 나의 추억 속을 거슬러 현실로 바뀌었다.

3년 동안 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결혼을 했으며 말이 적어지고 침묵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수업을 대충 하는 것 외에, 나머지 시간은 가능한 말을 아꼈다. 그리하여 얻은 것은, 첫째, 나에게 대한 학교의 평가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 내가 서른 즈음에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허풍에 능한 말솜씨에 힘입은 바가 크다. 표준이 되는 남성저음과 풍부한 말장난 솜씨로 널리 칭송을 받았다. 둘째, 내 삶에 여자가 적어졌다. 말이 없다는 것은 바로 여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새들도 짹짹 할 때면 ‘ 짹짹’하고 합창하지 않는가. 과거

의 여러 여자들 중에 지금은 한 여자만 남았는데, 이혼한 정부공무원인 그녀는 내 아내가 되었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객관적으로 내 목소리에 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낯선 목소리를 혐오했다. 주관적으로는 역시 모리의 등장 때문이다. 나는 모리가 떠난 그 새벽에 내가 이 어두운 피부의 여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리의 등장으로 또 다른 칭송이나 여인은 모두 중요치 않게 느껴졌다.

2 리우샤오둥

동방중학교는 사립학교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오전 마지막 수업이 끝났을 때였다. 저우샹의 담임은 나와 연령이 비슷한 여성이었는데 마침 수업이 없어 사무실에서 나를 맞이했다.

그녀는 나에게 맞은편의 의자로 안내하며 물었다. “저우샹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삼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는 생각했다. 내 앞의 이 여성은 나와 비슷한 나이로 아마 삶의 이력 또한 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 세대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모두 인생에 있어 ‘정해진 틀’에 따라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저와 저우샹의 부모는 대학 동기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암시했다.

“선생님은 이런 대학 동기간의 정에 대해서 이해하실 겁니다.”

그녀는 웃었다. 벽에 걸려 있는 상패가 그녀가 ‘시(市)에서 선정한 우수교사’임을 증명해 주었다.

“저우샹의 부친은 대학시절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런 의미에서 저우샹은 제 아들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아마 내 암시가 통했는지 여교사와 나 사이의 대화에서 장애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았다.

“저우샹의 부친 소식은 있나요? 요 몇 년간 계속 그를 찾고 있는 중이죠?”

“어쨌든 찾아야죠.”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내가 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건 저우샹 때문이지 그의 부친 저우요젠 때문이 아니었다.

“저는 저우샹의 가족이 그의 부친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 추측일 뿐이지만요.” 여교사가 말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저우상의 담임으로서 저우상의 평소 생활을 제게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건 모두 저우상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사실 간단해요. 저우상은 그야말로 지덕을 겸비한 학생이죠.” 그러나 그녀가 말하고 있는 표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자신만의 어떤 견해를 끄집어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학생이 갑자기 가출을 했으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녀는 웃기만 하고 답은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학생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평가 외에도 마음 속에 더 감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직감’ 같은 것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것도 제 직감이죠. 아 깜박했는데 저도 교사입니다. 제 학생들은 각양각색이지만, 모두 저에게 평어로는 포괄할 수 없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요, 그런 느낌은 저우상에게서 특히 강했어요. 뭐랄까, 이 아이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성적이나 성격 모두 완벽해요. 하지만 집안의 변고와 결부해보면 — 부친 일 말이에요 — 가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아이는 너무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네?”

“이 아이의 이러한 태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인정머리가 없거나 아니면 애써 뭘 감추려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 아이 연령대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버지가 실종됐으니 감정적으로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 아이한테서는 그런 고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인정머리가 없든 아니면 애써 뭘 감추려는 것이든, 사실 모두 우려할 만한 일이에요.”

“네, 선생님 직감이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런 직감을 저우상의 어머니에게 말씀 드렸습니까?”

“아니요. 저 또한 엄마로서 다른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학덕을 겸비한 우수한 학생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직감은 검증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직감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눈앞의 여교사에게 돌연 호감이 생겼다. 그녀는 나와 나이가 같았다. 우리 세대는 대학시절 질풍노도의 여름을 겪었다. 나는 동년배에게 돌연 호감이 생길 때마다 매번 상대에게 ‘학교 문을 나온 후 지난 몇 년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그런 안부를 물을 수 없었다. “학생 중에 저우상과 관계가 비교적 좋은 아이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한 아이가 있어요. 이미 저우상 어머니께 말씀 드렸어요.” 그녀가 이어서 내뱉는 이름에 나는 깜짝 놀랐다. “리우샤오둥.”

나는 그녀가 나를 부르는 줄 알고 한참 동안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 이름이 바로 리우샤오둥이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악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십여 분 후, 나는 학교 정문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틈에서 나와 동성동명인 그 아이를 만났다. 지금의 아이들은 키가 정말 컸다. 학생들 앞에 선 나는 내 자신에게서 어른이라는 우월감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리우샤오둥?” 나는 눈앞의 이 키가 큰 남자아이를 보면서 그 이름에 미혹되어서는 어처구니없게도 마치 자신이 거울과 마주한 듯한 환상에 빠졌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아저씨가 절 기다린다고 알려주셨어요.” 남자아이는 거리낌이 없었다. 책가방을 한쪽 어깨로만 메고 있었는데 가방이 한 쪽 어깨를 짓눌러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음, 무슨 일인지 선생님이 알려주셨니?”

“우리 여기서 얘기하나요?” 녀석은 반문했다. 꽤 노련해 보였다.

“물론 아니지.” 나는 규칙을 잘 알고 있다는 듯 행동했다. “우리 어디로 가지?”

KFC? 아, 근데 너 일찍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저는 점심에 집에 안 가요. 가도 점심때를 놓치고 어차피 집에 밥 해줄 사람도 없어요.” 녀석은 말을 덧붙였다. “우리는 집에 안 돌아가요. 저우상도 안 돌아가고요.” 보아하니 녀석은 내가 녀석을 만난 의도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안 돌아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밥을 먹니?”

“학교 식당에서요. 저와 저우상은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바로 저 건물에서요.” 녀석은 길 건너편의 건물을 가리켰다. “점심을 다 먹으면 낮잠도 잘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식당 밥 먹지말자. 괜찮지?”

녀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혼자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녀석을 뒤쫓았고 그렇게 두 명의 ‘리우샤오동’은 더위가 한창인 초여름 속을 걸어갔다.

반 정거장의 거리를 걸어가니 KFC가 하나 있었다. 여전히 앞뒤로 서서 그 리우샤오동은 혼자 가게 문을 들어갔다. 녀석은 빈자리를 찾아 앉았고 또 다른 리우샤오동인 나는 눈치껏 가서 음식을 주문했다. 녀석의 입에 맞지 않을까봐 나는 최대한 다양하게 주문했고 마음속으로 녀석의 입에 맞는 게 하나라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

음식이 가득한 쟁반 두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더니 녀석이 눈살을 찌푸렸다. “너무해요.” 녀석이 나를 나무랐다.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말을 끝내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녀석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학교에 3학년 남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좋아해서 KFC로 데리고 갔는데 한번에 500위안 어치 주문을 해서 학교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아저씨 이거 얼마 줬어요? 거의 죽히 그 정도는 될 거 같은데.”

나는 녀석이 말한 ‘그 정도’가 ‘500위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거리’라는 기준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아챘다. “음, 그 정도는 될 거야.” 나는 햄버거 하나를 집었다. “사실 우리 관계가 그 남녀 학생과 비슷하잖아. 나는 구애자라고 할 수 있고, 너는 오만한 여학생이라고 할 수 있지. 내가 너한테 애원하잖아.”

“치,” 녀석은 여학생이 되길 원치 않는 것 같았다. “그만 좀 하세요.”

“너 그거 아니? 우리 서로 이름이 똑 같아.” 나의 이 말은 확실히 친한 척 하려고 꾸며낸 말처럼 들렸다.

“그래요?” 녀석은 조금도 흥미가 없는 듯 보였다. “드문 일도 아니죠. 그냥 우리 둘 다 흔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얘기 좀 해봐. 저우상이 평소 너와 무슨 말을 하니?” 나는 녀석이 햄버거 하나를 집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질문했다.

녀석은 오히려 나에게 그들의 선생님에게서 무엇을 알아냈는지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 아마 알아낸 게 없다, 아니면 내가 너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녀석이 어린 애처럼 우쭐대는 것이 보였다.

“뭘 알려줄까요?” 녀석이 말했다. “얘기할 만한 건 모두 저우상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이상이든 지식이든 모두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마. 너는 이미 내 햄버거를 먹었잖아.”

“하하,” 녀석은 웃었다. “아저씨는 파이슈슈(怪蜀黍)군요?”

나는 다행히도 아직 이런 인터넷 유행어를 알아들었다. “그렇다고 치자. 그냥 오늘 잘 못 걸렸다고 생각하렴.” 내가 말했다.

“좋아요.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얘기 하고 있었어요.” 나는 녀석의 입에서 내뱉는 ‘과학’이라는 말이 금방 얘기했던 ‘이상’과 ‘지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은 재미없어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지식에 대해서 흥미가 있었죠.” 녀석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리 수준이 높아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학교에서 저우상의 성적이 일등이고 제가 아쉽게도 이등이죠.”

“그건 못 들었다.”

“상관없어요. 그런 수업들은 대충 얼버무리면 되고 말할 가치도 없어요.”

“음 그래, 그럼 네가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주렴.”

“저와 저우상은 요즘 해양과학기술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어요.”

“해양과학기술?”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진지하게 되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지식이지?”

“아저씨는 모르실거예요.”

“그래, 내가 못 알아들을 테니 마음대로 말해봐.”

2) 로리타 성향의 중년남성

“예를 들어 - 등심류(等深流)요.”

“음, 등심류라…….” 나는 국어를 가르치는 대학교수의 더할 나위 없는 무식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써 침착했다.

“등심류는 지구자전으로 인해 발생되는데, 대륙붕 아래 쪽의 경사면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흐르는 수류(水流)이에요. 일종의 견인류(牽引流)로 대륙붕의 경사면 방향을 따라 흐르고 유속이 느려 초속 15~20센티미터 정도고요. 수류에 실려 운반되어 퇴적되는 속도가 빨라 대륙붕의 중요한 지질영력(地質營力)이 되죠. 어떤 이는 등심류도 저류(底流)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 표정을 짓지 않고 묵묵히 경청했다.

“아무래도 내가 알아들을 만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게 낫겠다.” 조금 지나서 내가 말했다.

“법률이라면 알아들으시겠죠?”

“응 그럴 거야. 너희 법률에 대해서도 토론하니?”

“네, 저우상이 사라지기 전 법률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분야의 법률 문제였니?”

“우리는 인터넷에서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에 대해서 검색했어요.”

나는 감자튀김에 케찹을 묻혀 쟁반 위에 아무 의미 없는 선을 그리는데 몰두했다. 나는 이번 일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이것도 여전히 직감에 불과하다. 만약 국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존중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민감한 ‘직감’이며 그것이 그의 밀천의 하나 일 것이다.

앞에 앉은 리우샤오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만16세인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전적인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만14세에서 만 16세 미만인 자는 고의살인, 고의 상해로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때, 강간, 강도, 마약밀매, 방화, 폭발, 마약복용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대적인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요. 만14세 미만은 사회에 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든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 형사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연령이죠.”

“모레가 저우상의 생일인 거 알고 있지?” 나는 녀석의 말을 끊었다. “모레가 되면 저우상은 만14세가 되지.”

“알고 있어요.” 녀석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했다. “범죄를 범할 시의 연령

은 일률적으로 양력에 따라 년, 월, 일로 계산되지요. 생일이 지난 후부터 만으로 인정 되요.” 녀석의 말투가 나를 놀라게 했다. 녀석이 법률 조항을 열거할 때는 ‘등심류’를 설명할 때와 같은 어조였다.

“그렇군.” 나는 심호흡을 한번 했다. “말해 봐. 저우상의 이번 가출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지?”

“몰라요. 저에게 얘기 안 해줬어요.” 녀석은 눈을 깜박거렸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요.”

“말해 봐.”

“왜요?”

“첫째, 네가 내 햄버거를 먹었고, 둘째, 우리는 이틀 밖에 시간이 없어. 이틀 후에 저우상은 상대적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나이가 돼.”

녀석은 똑똑했지만 결국 아이에 불과했다. 녀석은 자신이 배운 법률지식과 친구의 가출을 연관 짓지 못했다.

“아저씨의 뜻은…….”

“그래,” 나는 녀석의 말을 가로챘다. 녀석의 입에서 이어서 나올 내용이 우리의 대화방향을 그르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말해 봐. 저우상이 어디로 갔지?”

이어서 우리 두 리우샤오둥은 KFC를 나와 반시간을 걸어 기차표를 예매하는 창구에 도착했다. 녀석의 집은 근처 아파트 단지였는데 저우상과 함께 여기에서 기차표를 샀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꼭 재확인하고 싶었다. 창구에서는 점심 때 기차표를 팔지 않았다. 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 상황에서 실력을 발휘하였다.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한 나의 간곡함이 창구 안의 아가씨를 감동시켰다. 요새 기차표는 모두 실명제로 구매된다. 저우상은 아직 신분증이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의 생명에 부여된 신분증 번호가 있다. 그 번호는 옆에 있는 녀석의 입에서 흘러 나왔다. 창구 안의 아가씨가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더니 확실히 5일 전 기차표 한 장이 이 창구에서 판매되었다. “선생님 운이 좋으시군요.” 아가씨가 말했다. “우리 단말기는 최대 5일 이내의 자료만 검색이 되거든요.”

나 역시 복권이라도 당첨된 행운아가 된 것 같이 초여름의 한 낮에 길가에 서서 만감이 교차했다.

“왜 저우상 엄마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나는 옆에 있는 녀석에게 물었다.

“첫째, 저는 저우상 엄마의 햄버거를 먹지 않았어요. 둘째, 저우상이 위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녀석의 머리에 꿀밤을 때렸다. 이 동작은 그리 자연스럽지 않았다. 녀석의 키가 거의 나와 같았기 때문이다. “저우상은 키가 어떻게?”

“저와 비슷해요. 왜요? 아저씨 저우상을 본적이 없어요?”

“3년 전에 봤었지. 그때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어.”

나는 조금 씩스러웠다. 그리고 갑자기 우울해졌다.

3년 전 늦은 밤 모리가 나를 찾아온 후 우리는 계속 연락했지만 그녀는 내 집에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개가 악몽과 같이 짖어대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나 역시 그녀의 집에 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나 또한 두려운 것이 있었다. 그녀의 집에서 그녀와 잠을 자면 나는 실종된 저우요젠이 침대 밑에서, 옷장이나 벽에서 튀어 나와 우리 둘을 향해 호되게 질책할 것만 같아 두려웠다. 한번은 길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당시 그녀는 학교가 끝나고 나오는 아들을 마중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모자는 내 맞은편에서 걸어왔고 몇 십 미터의 거리에서 그녀는 얼굴에 불안한 신호를 띄웠다.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저우요젠이 실종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녀는 아들이 그녀의 삶에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보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와 그 모자는 그렇게 스쳐 지나갔고 애써 거리의 행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의 손에 이끌린 그 남자아이는 그렇게 스치듯이 나와 대면한 적이 있었다.

그런 내가, 지금은 그 남자아이를 찾고 있다.

나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저우상이 정말 너에게 이번 행동의 목적을 말해주지 않았니? 여행을 간 건 아닐 테잖아?”

“정말이에요. 저는 몰라요.” 녀석은 말했다. “저는 저우상이 14세가 되기 전에 멀리 한번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어른이 되기 전에 한번은 집을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왜? 왜 그렇게 하고 싶니?”

“성인이 된 후 집을 떠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 말에 넋이 나갔다.

“성인이 된 후 집을 떠나는 것이 재미가 있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고 대가도

매우 커요. 저우샹 아빠처럼 말이에요.”

그건 저우요젠을 말하는 것이었다. 저우요젠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너희는 저우샹 아빠가 집 나간 일을 얘기한 적이 있니?”

“얘기한 적 있어요. 저우샹은 아빠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이러한 행동만이 아빠의 삶과 등심이 된다고 했어요.”

“등심?”

“등심류요. 당시 우리는 마침 그 방면의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저우샹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나는 녀석에게 학교로 돌아가는 차비를 줬다. 녀석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둘은 모두 리우샤오동이라는 흔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내가 열네 살이었을 때는 이 세상에 ‘등심(等深)’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비유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먼저 카페에 도착했다. 모리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시 우리 둘의 지난 날을 회상했다.

대학시절, 우리는 저우요젠으로 인해 헤어졌고 3년 전, 우리는 저우요젠 때문에 재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우요젠을 찾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핑계이자 이유가 되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저우요젠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것은 사람을 난처하게 할 뿐이었다. 우리는 암묵적 동의로 어느 정도는 저우요젠의 실종을 부호화했다. 그리고는 머리에 그 허울을 쓰고 우리의 만남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도록 했고 마치 불행한 두 사람이 서로를 굳게 의지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 불행은 확실하게 저우요젠의 실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우요젠은 우리가 만나는 동안 소식이 묘연했다. 한번은 모리가 전화를 걸어와 저우요젠이 이웃 현(縣)³⁾의 수용소에 수용됐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굽이치는 도로를 따라 그 곳으로 차를 몰고 갔다. 윗부분이 깨진 유리조각과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장식된 담장으로 둘러쳐진 그 건물 안에서 나는 일생에 걸쳐 볼 수 있을 모든 장애자와 병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3) 중국 행정 구획 단위의 하나

채 순수한 표정으로 암전하게 번들번들한 나무 침대에 앉아있었다. 나와 모리는 부식된 창문을 통해 하나씩 안을 들여다봤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기대하던 낮익은 모습의 저우요젠은 없었다. 그 후 우리는 수용소 울타리 밖에 있던 모리의 차 안에서 다시 평안하게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다시금 서로를 의지할 이유를 얻은 듯 했다.

나는 모리에게 저우요젠이 집을 나간 원인을 정말 모를 수가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이 질문은 모리를 당황스럽게 했다. 그녀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넌 모르겠니? 우리가 졸업하기 전 그 여름에 발생한 모든 것들이 이미 저우요젠을 뺏속부터 산산이 부숴버렸어. 시대가 변했고 그가 발언할 여지는 이미 아예 없어져 버렸지. 예전에 그가 세상과 대치해 포효했다면 발산을 통한 자아치료였다고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런 통로가 막혀버린 후에 그는 조용히 세상과 대치할 수밖에 없고, 철저히 이단아가 되어 모든 것과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진 병자가 되어버렸지.”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고 나는 그렇게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해 여름 우리 세대의 모든 행동거지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 내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를 더욱 슬프게 했던 것은 그 말이 끝난 후 그녀가 나를 향해 웃음을 보였다라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웃음이 가식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번 웃어넘길 것을, 그녀는 두 번, 세 번 웃었고 그래서 과장되게 수식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의문을 삼켰다.

어느 날 모리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했다. 상대는 아무 말이 없었고 곧 그녀는 전화 건너편의 상대가 저우요젠임을 느꼈다. 그녀는 전화에 대고 ‘저우요젠! 저우요젠 맞지? 저우요젠!’이라고 외쳤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저우요젠이었을까?’ 나는 나중에 길가의 공중전화로 그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녀가 전화를 받은 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나운서와 같은 말투로 두 번 ‘여보세요’라고 말했고 반응이 없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둘이 만난 후에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에게 그런 이상한 전화를 또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녀의 반응은 전기충격을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을 내게 주었다 - 그녀는 마찬가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앞의 모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

다. 그녀는 침묵한 채 나에게 시원스러운 답을 주지 않았다. 이 바이올린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가 경청할 수 있게 자신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침묵보다 더 소란한 것이 있을까?

그녀가 카페 안으로 들어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내 앞에 앉았을 때, 나는 그녀의 침묵에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3년 전 저우샹을 데리고 시안으로 여행가서 생일을 보냈던 정황을 듣고 싶어.” 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말이 끝난 후 나는 내 시선을 먼 곳으로 옮겼다. 나는 이어서 그녀의 침묵을 음미할 수 있는 짧지 않은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이 카페 천장에는 갈색과 은색을 띠는 주석으로 만든 장식이 있었다. 바(bar) 정면은 책장으로 되어 있었고 눈길에 미치는 곳에 『중국독립시인시선』이라는 책이 보였다. 그 책은 책등이 가장 두껍고 글자도 가장 커서 장대한 느낌을 주었다. 『중국독립시인시선』이라는 뜻밖의 제목에서 나는 어쩌서 ‘독립’을 갖다 붙였는지 짐작해보고 싶었다.

“왜?” 그녀의 응답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소파의 쿠션을 바로 잡으며 그녀는 나를 향해 질문했다. “왜 그걸 알고 싶지?”

“내가 먼저 당시의 정황을 얘기해 봐.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탄 생각을 멈추고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미백색의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가느다란 목걸이가 반짝였다. 동전 모양의 은 귀걸이는 어두운 빛을 발했다. 확실히 그녀의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3년 전 우리가 만날 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틀 연속 같은 옷차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걸어오는 여종업원을 향해 레몬수를 주문했다. 시선을 되돌렸지만 나를 보지는 않았다. “우리는 주말에 갔어. 저우샹이 학교에 가야 해서 이틀만 머물기로 했지.” 그녀는 머뭇거렸지만 무엇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나는 저우샹을 병마용(兵馬俑)으로 데리고 갔어. 음, 그리고 화청지(華淸池)에도.”

“잠은 어디서 잤어?”

“물론 호텔에서 잤지, 왜?”

“시안에서, 무슨 일 없었어?”

“아니…… 아마 아닐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모르겠어, 그게 무슨 일이라고 할 만한 건지 모르겠어.”

“말해 봐.”

“왜 그래!” 그녀는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샤오둥, 어째서 이 문제를 잡고 늘어지는 거야? 저우샹이 시안에 있기라도 할까 봐?”

“그래, 십중팔구는.”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내가 ‘모리(茉莉)’라고 부르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작은 물결이 일었다. “저우샹은 집을 나간 당일 시안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어. 시간표를 찾아보니 그 기차는 저녁 9시 58분 출발이었지. 시간적으로 들어맞아. 경비가 저우샹이 단지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난 후부터 네가 5시간 후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 사이야.”

“어디서 들은 얘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니,” 그녀는 완고했다. “내게 말해줘.”

“그래, 리우샤오둥이 말해줬어.”

“리우샤오둥?”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는 얼른 덧붙였다. “저우샹의 친구 말이야, 너도 만난 적이 있어.”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애 말이구나. 그래, 저우샹의 그 친구는 너와 이름이 같았어. 너에게 말해주는 것도 깜박했어.”

“별로 드문 일도 아니야. 내가 그저 흔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돼.”

그녀는 조금 놀란 듯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 리우샤오둥은 왜 내게 말해주지 않은 거지? 저우샹이 집을 나간 다음날 나는 그 애를 만났어.”

“네가 녀석에게 햄버거를 사주지 않아서야.” 말을 뱉고 나니 이런 말이 지금 분위기에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바로 말을 바꿨다. “아이들은 그들 사이에 도의가 있어서 서로 상대를 위해 비밀을 지켜주지.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저우샹은 왜 지금 이 시기에 시안으로 가려는 거지?”

“지금 이 시기라 - , 열네 살 생일을 보내기 전을 말하는 거니?”

“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곧 생일이야.”

“저우상이 혼자 3년 전에 생일을 보냈던 즐거움을 되새기고 싶어 한 것일까?”

“그럴 리가 없어! 너무 터무니없어. 저우상이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나와 함께 갔을 거야.” 그녀는 그제야 애써 기억해내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저우상이 그리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던 거 같아. 저우상은 병마용이나 화청지에 별로 흥미가 없었어.”

“나도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시선을 그녀의 얼굴에서 다른 데로 돌렸다.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모리, 나에게 사실을 말해줘야 해. 시간이 별로 없어. 이제 이틀 밖에 남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무슨 사실? 왜 시간이 없다는 거야? 어째서 이틀이라는 거지?”

“우선 그렇게 많은 걸 묻지는 말고,” 나는 여전히 시선을 회피했다. “나도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어. 나도 대부분은 아직 직감에 의존할 뿐이야.”

“직감?”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계속되는 질문을 가로 막았다. “먼저 말해 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너희가 만난 사람은 없어?”

그녀는 멍하니 침묵했다. 한참이 지나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래, 우리 회사의 본사가 시안에 있었어. 도착하니 회사에서 우리를 데리러 나왔어. 그런데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아.”

“너의 느낌을 얘기하지 말고 사실만 얘기해.”

“그래, 알았어!” 그녀는 마치 결심을 한 것 같았다. “그 때 회사 회장이 며칠간 우리와 동행해줬어. 시안 시내에서 관광지가 꽤 멀어서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쉽지 않다는 걸 너도 알고 있을 거야.”

“그저 관광지만 데려다 준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다. “샤오둥, 마음대로 그렇게 추측하지 마. 아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분별없이 행동하진 않아!”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시선을 그녀의 얼굴로 돌려 침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가 나의 시선을 회피했다. 나는 그녀의 그런 표정을 그냥 지나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3년 전 어느 날 밤 호텔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모리는 내가 잠이 든 줄 알고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어떤 이와 통화했다. 목소리가 매우 작아서 처음에 나는 TV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이미 자제가 안 될 정도로 흥분되었다…… ‘아니! 결코! 내가 왜 잠자코 있어야 하죠? 말을 하겠어요, 말을 하겠다고요! 온 세상이 다 알게!’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녀가 말을 하면서 손으로는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고통스런 목소리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귀를 파고 들어 심장까지 찌르는 것처럼 들렸다. 그때도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전화 너머는 누구일까? 도대체 누가 그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까 – 저우요젠의 실종이 이 일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네 회사의 회장은 이름이 뭐지?”

“귀홍성. 샤오둥 너 - ”

“저우샹은 그 귀회장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확실해.”

“네가 어떻게 알아?”

“역시 직감이야. 모리, 잘 생각해봐. 그 당시 저우샹과 귀회장 사이에 무슨 일 없었어?”

“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말해야 한다면, 그 일이 그래도 말을 할 만한 일인 거 같은데……” 나는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고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화청지에서 돌아온 그날, 귀회장이 우리를 호텔로 데려다 주었는데 로비에서 헤어지면서, 그가…… 음, 나를 가볍게 쳤어.” 나는 여전히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래, 그가 내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렸어.” 그녀는 망설이는 시선을 거두었고 결연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모습을 저우샹이 보고 말았어.”

“저우샹의 반응은 어땠어?”

“반응이 의외였어. 원래 다음날 대안탑(大雁塔)에 가기로 했었는데 귀회장이 우리를 데리러 왔을 때 저우샹은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림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들어맞았지만, 그 그림 조각들이 들어맞는 이유가 낯설어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저우샹이 저우요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저우샹은 거의 불만을 표출하지 않거든.” 그녀는 이미 말을 멈출 수 없었다. 눈은 나를 향했지만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자신의 과거였다. “시안에서 돌아온 후 저우샹은 나와 확연히 사이가 멀어졌어. 그 때는 저우요젠이 아직 있을 때였는데 원래 평소에는 부자지간에 별로 친하지 않았어 - 저우요젠의 그런 상황을 너도 알겠지만 - 하지만 그 시기 저우샹은 집에 돌아오면 서재로 가서 저우요젠과 함께 지냈어. 그래서 나는 다소 실의에 빠졌고 심지어는 저우요젠의 실종이 저우샹이 그에게 뭔가를 얘기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래서, 관련이 있는거니?”

“나도 모르겠어.”

“너는 알고 있어, 내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거야.”

“샤오둥……” 그녀는 흐느꼈고 또 다시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그 순간 나는 실로 고통스러웠다. 저우요젠이 정말 그리웠다. 결혼생활로부터 스스로를 추방시켜버린 그 저우요젠이 그리웠다. 근처 테이블에 한 손님이 우리를 등지고 앉아 있었다. 나는 심지어 그가 나와 같이 학교를 다닌 저우요젠이길 바랐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무엇이든 깨부술 수 있을 듯한 표정의 얼굴을 한, 여전히 지퍼가 고장 난 당시의 점퍼를 입은 저우요젠을 볼 수 있길 바랐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지퍼가 다시 한 번 세상을 돌연 멈춰버리길 바랐다.

여종업원이 다가와 모리의 물 컵에 물을 따랐다. 나는 그녀가 별로 친절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녀는 내가 누군지 알아챘을 것이다. 내가 영수증을 요구할 짜증 나는 사내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간절하게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 그래, 내가 행복할게. 오늘은 절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겠어.

3 모리(莫莉)

나는 밤 9시50분에 시안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시간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나는 사실 비행기를 탔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기차를 선택했다.

뭐랄까. 나의 이번 여정이 악몽적 색채를 띠고 있고 꿈속에서의 추적을 위해서는 꿈의 궤적을 쫓아가야 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저우샹이라는 남자아이와 같은 길을 따라 걷고 싶었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그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직감적으로 조급한 태도를 버렸다. 그 남자아이가 이번 일에서 침착함을 보여줬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집을 나설 때의 모습을 본 듯한 착각이 들었다 - 남자 아이는 저녁 무렵에 석양을 보며 집에 돌아왔고 평소처럼 단지로 들어서며 예의 있게 경비를 향해 인사를 했다. 집에 들어와 숙제를 끝내고 책가방의 교과서들을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놨다.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어 소시지 한 토막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운 후 천천히 씹어 삼키며 대충 저녁을 대신했다. TV도 좀 봤을 것이다. 9시쯤 되자 그는 시간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침착하게 기차역으로 출발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내가 아래층까지 나를 배웅했다. 나는 그녀에게 갑자기 학교 일로 시안의 학술회의에 참가하러 간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단지 입구까지 배웅해주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내저으며 그녀에게 올라가라고 했다. 나를 기차역까지 태워다 주기로 한 모리의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위엔은 이미 나이가 든 파괴용 개였다. 녀석은 묵묵히 아내와 함께 집을 떠나는 나를 목송했다.

나는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시안으로 동행하려는 모리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전에 저우요젠을 찾으려고 함께 수용소로 갔던 경험은 지금까지도 내게 부정할 수 없는 금기가 되었다. 나는 모리에게 내가 내 아들을 찾는 것과 같이 저우샹을 찾을 것이니 나를 믿어달라고 했다.

“나를 믿어야 해. 이 아이에 대한 걱정은 너와 내가 등심(等深)이야.” 내가 이렇게 그녀에게 말해놓고 내가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녀의 은색 푸조차에 앉은 나는 그 단어에 사로잡혀 세상이 기울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 몇 년 전의 그 해 여름, 우리가 폭풍우의 한 가운데 있을 때 몇 년이 지난 후 우리가 이 작은 차에 앉아, 늦은 밤 우리의 눈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찬란한 광채가 펼쳐질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오늘은 가벼울 수도 혹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예전의 과거와는 결코 같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마치 시소의 한 끄트머리처럼 공중에 던져졌든지 아니면 벼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결코 균형도 아니고 등심도 아니다.

우리는 기차역 앞에서 작별했다. 그녀가 플랫폼까지 나를 배웅하겠다는 것을 내가 말했다. “너무 과장스럽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태평할수록 일의 결말이 평안할거야.” 내가 말했다.

순간 나는 그녀가 울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도로 삼켰다.

나는 이미 몇 년 동안 기차를 타보지 못했다. 기차 안의 승객이 별로 없었는데 다소 의외였다. 내 기억으로 기차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었다. 내 침대칸을 찾은 후에 나는 바로 눕지 않고 그 위에 걸터앉아 호흡을 가다듬고는 무아의 지경에 들어갔다. 내 아버지는 바이올린을 만들 줄 알뿐만 아니라 기공도 할 줄 알았다. 아버지가 내게 기공을 가르쳐줬지만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해보지 않았다. 기차가 출발한지 오래지 않아 침대칸의 등이 꺼졌다. 심호흡을 하는 가운데 나는 방관자가 되어 마음속으로 장면들을 하나씩 담담히 떠올렸다.

3년 전 어느 날, 나는 한 좌담회에 참가했다. 회의가 끝난 후 호텔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에선가 잠시 멈췄고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그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렸다. 나는 이미 반쯤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비집고 나와 모리와 빼빼 마른 사내가 복도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버려서 어느 방으로 들어갔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나는 방문마다 가까이 다가가 귀를 바짝 갖다 대고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방문들 뒤편에 갇힌 것은 모두 허무였고 유일한 소리는 소름이 끼치는 고요함뿐이었다. 나는 아무런 소득 없이 공허한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고 황당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자신이 증오스러웠다. 밖으로 나온 후 호텔 앞의 주차장에서 모리의 은색 푸조차가 보였다. 나는 더 자세히 살펴봤고 차량번호가 일치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의 목구멍에서 기포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입을 크게 벌려 솟아오르는 숨결을 하늘을 향해 발산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 기세가 맹렬해서 나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몇 발자국 나아가 ‘웁’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잔디밭에 위액을 한입 토해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더욱 험

오스럽게 만든 것은, 나의 몸이 계속 앞으로 쏠려서 발 하나가 내 오물을 밟은 것이었다.

모리가 ‘온 세상이 다 알게’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마침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 그녀에게는 빼빼 마른 한 사내가 있었던 것이다. 이 남자는 그녀에게 침묵하라고 했다 - 그녀가 소리치고 말하려 했지만, 온 세상이 다 알게 하려고 했지만 말이다.

나와 모리도 호텔에서 만나는 걸 택했다. 통상 내가 미리 방을 예약하고 모리가 나중에 때맞춰 도착했다. 몇 번 예외도 있었다. 모두 한밤중이었는데 모리가 전화를 걸어와 ‘이리 와, 나 호텔에 있어. 나 너무 무서워……’ 라고 말했다.

나와 이 빼빼 마른 남자는 모두 호텔에서 모리와 만났다 - 이 사실이 이 남자의 존재 자체만큼이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같은 말을 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 나는 모리와의 연락을 끊었다. 이혼한 그 여공무원이 잠시 동안 나의 불안을 달래주었다. 여공무원은 온화하고 부드러웠고 잠자리에서는 콧소리와 목소리가 잘 배합되어 번갈아 가며 리드미컬한 신음소리를 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내 침대에 누울 때마다 샹위안은 조용히 침대 아래 엎드려 즐거운 듯 코를 골기 시작했다. 평안하게 코를 고는 소리가 무감각하고 의기소침하여 창밖의 음습한 질은 안개와 서로 어울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모리가 더 생각났다. 그녀의 몸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듯한 미혹과 개 짖는 소리가 들끓던 그 밤이 생각났다. 비록 나는 모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 그녀는 쉬웠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와 그녀가 서로를 이용해 각자의 운명을 감춰버렸을 뿐이다……

야간기차의 침대에서 좌선을 하자, 내 마음이 밝아졌고 눈에선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차는 다음 날 아침 7시쯤 시안에 도착했다. 시안역 앞의 교통체계는 매우 기괴해서 고의로 여행객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다행히 나는 여장을 간단히 해서 가방 하나만 짊어지고 있었다. 시간을 좀 들여 택시를 잡았다. 내 목적지는 위상문(玉祥門) 밖의 친두(秦都)호텔이었다 - 이 호텔이 모리

모자가 시안여행에서 머물렀던 곳이다.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 하면서야 나는 내 자신이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우샹이 여기에 머물 리가 없었다. 현재 호텔의 숙박등기 제도는 매우 엄격해서 미성년의 남자아이에게 투숙허가를 줄 리가 없었다. 지금은 빈틈이 없는 시대로 남자아이의 가출에는 여러 장애가 따르기 마련이다. 과연 내 설명을 듣고 난 후 프런트의 여직원은 참을성 있게 그런 손님은 없었다고 내게 알려줬다. 나는 그리 실망하지 않았고 내 자신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여겼다. 이것도 역시 직감에 의존한 것이었다.

이 호텔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 방의 인테리어도 다소 오래됐고 전화는 지난 세기의 유물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위생 상태는 괜찮았다. 내가 요구한 방은 북향이었고 밖으로 눈을 돌리면 시안의 성벽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아이의 시각으로 주위를 관찰했다. 그 아이의 시야를 체험해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은 나를 로비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 나는 로비의 소파에 앉았다. 3년 전 남자아이는 열한 살이었고 키는 지금 소파에 앉아있는 내 눈높이와 거의 같을 것이다. 그리 하여 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 - 모친이 자신의 회장과 작별하고 몸을 돌리려는 그 순간, 그 남자의 손이 모친의 엉덩이를 쳤다. 모친은 화를 내지 않고 양탈을 부리며 웃었고 고개를 돌리자 뜻밖에도 지금 이 눈높이의 남자아이의 두 눈과 마주쳤다.

제복을 입은 경찰 두 명이 프런트에서 뭔가를 질문하고 있었다. 관례적인 공무 같았다. 직원들과 그들은 매우 잘 아는 사이처럼 보였다.

말하자면 터무니없지만, 3년 전 나는 모리와 호텔방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우리는 파출소로 끌려갔지만 두 사람 모두 매우 차분했고 서로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서로 바짝 붙어 의지했고 몽환적으로 든든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의 의연한 태도가 하나의 존엄한 보호막이 되었다. 어쩌면 지금의 경찰 수준이 올라가서 우리가 크게 난처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꽤 어린 경찰 하나가 있었다. 입술은 축축했고 위에는 잔털이 나 있었다. 그는 매우 흥분했지만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고 다른 경찰들의 태도가 온화해서 그는 위세를 떨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내내 조롱하는 표정으로 나와 모리를 쳐다보았다. 특히 내 직업을 확인하고 나서 그의 조롱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우리를 보고 소리 내어 웃

있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모리 주위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폭발했다. 처음에는 머리속에서 뭔가가 하늘거리는 느낌이 들다가 이윽고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조롱하던 그를 향해 소리쳤다. “네가 뭘 조롱해? 인생을 조롱하는 거야! 아니면 생명을 조롱하는 거야……” 분노가 홍수처럼 솟아올랐고 몸속에서 격렬하게 충동을 일으켜 난 폭하게 나를 갈기갈기 찢어 분쇄시켜버리려 했다. 내 얼굴은 일그러졌고 두 손은 내 목을 졸랐다. 내가 꼳꼳하게 굳어 쓰러지려는 순간 모리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렸다. “샤오둥 - ”

나중에 학교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일은 흐지부지 지나갔고 그저 동료들의 입에 오랫동안 오르내렸을 뿐이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원래 내 자신도 침묵 속에서 폭발하는, 나아가 그런 병이 잠재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 순간 그러한 과거가 떠올랐고 갑자기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나는 그런 나쁜 습관을 끊어버린 지가 오래됐지만 이 순간 다시 되살아날지는 생각도 못했다. 옆에 담배를 파는 카운터가 있었다. 나는 그 곳으로 걸어가 ‘555’ 담배 한 갑을 샀지만 의식적으로 라이터는 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호텔 식당에 앉아 불을 붙일 수 없는 담배 한 개비를 손가락에 끼워 놓고만 있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나는 호텔 문 앞에 서서 반시간은 족히 기다려서야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차에 올라타니 기사가 사투리로 나를 향해 기름 값을 원망했다. 내가 몇 마디 대꾸하려고 준비를 하자마자 뜻밖에도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친두호텔의 고풍스런 앞문이 뚜렷하게 보였다. 원래 내가 가고자 했던 곳이 걸어서 와도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리였던 것이다. 그제 보니 모리가 이 호텔에 투숙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지예(憶捷)회사 본사가 바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지예 회사 본사는 빌딩의 상층부에 있었다. 나는 옥외 전망엘리베이터를 타고 등속으로 상승하면서 줄곧 밖을 주시했다. 나는 길가의 행인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일 때까지 가방을 멘 남자아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나서자 이지예 회사의 드넓은 홀이 펼쳐졌다. 나는 카운터 직원에게 바로 가지 않고 창가 쪽에 있는 소파에 엉덩이를 붙였다. 소파 앞 유리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크리스털

재떨이가 있었다. 그것의 암시를 받아 나는 그 ‘555’담배를 끄집어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담배를 재떨이 옆에 놓아두기만 했다. 그 평면에 어떤 미묘한 균형과 조화를 맞춰주기 위함이었다.

테이블에는 이지에 회사의 전단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 들어 펼쳐보았다. 확실히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었다. 유색금속, 건축재료, 석유화학제품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거의 모든 폭리업종을 영위하고 있었고 계열사로 광산업과 발전소도 가지고 있었다. 전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회장의 사진이었다. 귀홍성이라 불리는 이 중년남성은 내 눈앞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의 뒷모습과 같이 뻐뻐 말랐다 - 내가 말하는 그의 정면사진은 내 눈에는 그의 뒷모습과 같은 성질의 것이었다. 그 회사 계열사 사장의 명단에서 나는 모리(莫莉)라는 이름을 보았다. 그 순간, 내가 이 두 한자를 읽었을 때 나는 그것을 ‘모리(莫莉)’라고 읽었다. 내가 놀란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가 언급한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확실히 조금도 기억에 없었다. 나는 심지어 그녀가 한 대기업 계열사의 임원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모리(莫莉)’라는 사람은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이름을 가진 여인의 삶은 전연 내 주목을 받지 못했다. 나는 완고하게 그녀를 그저 바이올린으로만 여겼다.

나의 행동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카운터의 여직원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그녀는 내 옆에 멈춰 서서 두 손을 아랫배 위에 모으고는 살짝 몸을 앞으로 굽혀 내게 물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는 키가 꽤 컸다. 내가 일어선다면 그녀보다 머리 반이 작을 것이 확실했다. “귀회장님 계신가요?” 내가 물었다.

“네, 회장님을 만나시려고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관례적으로 질문했다.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죄송하지만 만나실 수 없습니다.”

“물 한잔 주세요.” 나는 창 밖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요구했다.

그녀는 한 쪽에 있는 정수기로 가서 종이컵에 물을 따르고 난 후 다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대략 10분에 걸쳐서 그 물을 다 마셨다. 그리고는 일

어서서 그 여직원의 이상한 듯한 목숨을 받으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끝까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정말 그녀가 나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모리의 전화였다.

“어디야?”

“호텔, 우선 한숨 좀 자고 싶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자겠다고?…… 그래 알았어.” 나는 그녀의 언외지의를 들을 수 있었다 - 네가 어떻게 잠을 잘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확실히 졸음이 몰려왔다. 어젯밤 기차 안에서 사실 나는 잠을 싹껏 잤다. 그러나 그것은 기공의 결과였다. 숙면을 취하고 있던 나는, 또 다른 나 혹은 아예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육체적 의미에서 내 자신에 속하는 수면이 필요했다. 내일은 저우샹의 생일이다. 그 사실이 시간적으로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오히려 나는 긴장하지 않았고 나의 직감은 내게 말했다 - 우선 가서 좀 자라고.

거의 하루 종일 나는 호텔 방 안에서 베개 세 개를 베고 잠을 잤다. 오후 두 시쯤 밖으로 나와 한 바퀴 산책을 했고 주변 환경에 대충 익숙해지자 눈에 들어오는 조그만 식당으로 들어가 유명한 양고깃국을 한 그릇 먹었다. 이런 음식은 매우 실속 있어서 뱃속에 한 그릇 들어가니 최소 3일을 굶어도 끄떡없을 것 같았다. 혼자 낯선 도시의 작은 식당에 앉아 밥을 먹고 혼자 별 목적지도 없이 타향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은 내가 만물 속으로 융합되는 정취를 느끼게 해주었다.

저녁 무렵, 나는 다시 이지에 회사의 로비로 돌아왔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내가 로비에 막 들어섰을 때 그가 안에서 나왔다. 그 뻐뻐 마른 남성은 빌딩 안에서 한 단계씩 내려와 내 눈앞을 지나쳐갔다. 그는 황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었고 티셔츠 밑단을 바지의 허리 안으로 집어넣어 그의 체격이 더욱 말라빠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뜻밖에도 그는 어떤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가하게 걸어서 밖으로 나갔다. 나는 원래 그의 뒤를 쫓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이 때 나는 그의 뒤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매우 특이했다. 물론 내

잠재의식이 작용한 때문일 수도 있지만 - 나는 그가 두 손을 매우 과장되게 흔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두 손은 내가 보기에 또한 특별히 커 보였다 - 그 두 손은 이전에 남자아이의 눈앞에서 모친의 엉덩이를 쳤다.

오래지 않아 나는 그의 행동 방향을 짐작했다. 찾길을 건너 그는 친두호텔 정문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 상황에 만족했다. 나는 내 자신이 이미 이 일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편히 한 숨 자고 나니 내 직감은 로켓과 같이 이미 나를 정확하게 운행의 궤도로 올려놓았다. 지금, 나는 이번 일에 완전한 배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뒤따라 호텔로 들어갔고 그 뻐뻐 마른 뒷모습이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주위를 살핀 후 나는 프런트로 다가가 가벼운 말투로 여직원에게 물었다. “금방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본거 같은데 이지에 회사의 귀회장이 맞습니까?”

여직원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미소로 나를 응대했다. “네, 그분이 맞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세요? 귀회장님은 여기에 객실을 장기전세로 갖고 있으시죠.”

“아, 감사합니다.” 나는 고마움을 표시하고는 몸을 돌려 로비의 소파에 앉았다. 역시 그랬다. 그는 장기로 이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다. 3년 전 모리 모자가 이곳에 투숙했을 때 그도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다면 남자아이가 목격한 것은 단지 자신의 모친의 엉덩이를 때린 그 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저우상은 무엇을 더 보게 되었을까? 아마도 한 밤중 조용히 사라지는 모친의 모습일지도 모를 일이다……

비록 지금 나는 이미 결혼을 했고 과묵한 생활방식을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어제 밤 심신을 수양하는 기공을 했고 오늘 충분한 잠도 잤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격렬한 고통을 느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고통은 그 남자아이가 그날 느꼈던 고통에 버금갈 것이다. 우리의 고통은 - ‘등심(等深)’이다.

나는 호텔 로비에 계속 앉아있었다. 호텔 직원이 짐이 가득한 손수레를 끌고 내 앞을 지나갔다. 객지를 떠돌아다니는 여행객이 내 앞을 지나갔다.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는 불륜남녀가 내 앞을 지나갔다. 거대한 상들리에의 조명 아래, 나는 이 시대의 천태만상을 목격하는 것 같았다.

밤 11시가 되도록 계속 앉아있었지만 그 뻐뻐 마른 남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방으로 음식을 불렀을까?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 양고깃국이 아직도 내 식도에 걸려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고독하지도 않았다. 이 순간 또 다른 한 남자아이가 어느 구석에 몸을 숨기고 나와 함께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이 확실해진 후에 나는 몸을 일으켜 호텔 밖으로 나갔다. 6월 초의 시안은 이미 걷디기 힘들 정도의 더위가 느껴졌다. 밤이 되어도 여전히 여름 더위가 뿔어져 나왔다. 멀지 않은 곳의 성벽 아래에 네온이 깜박였다. 그 곳에 술집 하나가 있었다. 술집 이름은 ‘라오청근(老城根)’이었다. 치과 오를 입은 아가씨가 나를 안으로 맞이했다. 술집은 노천형태로 성벽에 붙어있었고 정원에 빼곡한 고목은 조명을 받아 기이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손님은 매우 많아서 성벽 아래의 정원에서 잔치라도 벌어진 듯한 분위기였다.

나는 맥주를 주문했다. 정원의 중앙에는 무대가 세워져 있었고, 무대 위의 색소폰 연주자가 그룹wham의 ‘Careless Whisper’를 연주하고 있었다. 이 오래된 곡은 나를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나는 옆에 공손하게 서 있는 종업원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욕망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wham은 처음 중국을 방문한 서양 로큰롤 그룹으로 ‘Careless Whisper’는 당시 미국에서 플래티넘 디스크를 수상한 노래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절실히 지난 세기의 이런 낡은 지식을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내가 노쇠하고 아는 체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물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저 맥주만 마시고 있었다.

나는 여공무원과 결혼할 때 전화로 모리에게 소식을 알렸다. 그 날 많은 친구들과 학생들이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 내 집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다. 나는 그녀가 정말로 울지 몰랐다. 우리는 소란을 틈타 밖으로 빠져 나왔고 교직원 주택단지의 정원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제는 일정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할 듯한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서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우리는 대화가 침울해지는 것이 두려워 서로 조심했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대충대충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했다.

모리가 말했다. “너희 그 개가 순식간에 병어리가 되어버린 것 같던데, 아까 집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개가 짖는 소리를 못 들었어.”

“아 그렇구나.” 내가 말했다. “원래 주택가에서 기르는 개들이 많아 개 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나이가 든 물리학 교수가 전지를 장착한 개 목줄을 만들어 개에게 채웠어. 개들이 신경질적이 되고 계속 짖어대면 목줄이 소리에 반응해 순간적인 전류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그 전류가 개의 신경을 자극하여 고통을 주지. 그렇게 세 번 하니 개들이 자각을 하고 입을 다물고는 일종의 격렬한 소리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 모리는 주위를 돌아보고 과연 주위의 모든 개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목에 목줄을 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목줄의 모양은 제각각으로 어떤 개는 알록달록한 나일론 줄을, 어떤 개는 작은 망울 몇 개를 달고 있었다. 소리 없이 뛰어다니는 개들을 보면서 모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모른척한 체 낙엽들 사이로 산산이 갈라진 햇빛 아래에서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물론, 일부 개는 막 목줄을 달았을 때 더 난폭하게 짖어대지만 사실 그건 습관과 관련된 문제야. 잠시 적응이 안 되고 긴장을 했기 때문이지 목줄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야.”

.....

나는 두 시간 동안 맥주 세 잔을 마셨다. 원래 이 정도 맥주에 취할 내가 아니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데로 자신을 동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밤중에 나는 술집을 나서 호텔로 향했다. 가득 찬 방광이 나를 종종걸음을치게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때 갑자기 모리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 급박함은 지금의 강렬한 요의(尿意)와 같았다.

막 핸드폰을 꺼냈을 때 내 옆에서 사람의 손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 사내가 언제 나에게 접근했는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완전히 본능적으로, 그의 손이 내 핸드폰을 움켜쥐었을 때 나의 다른 한 손도 그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그리고 이어서 완전한 금나술(擒拿術) 동작에 들어갔다. 관절 꺾기의 반작용으로 그는 내 오른쪽으로 나뒹굴었다. 땅바닥에 드러눕자 나는 무릎으로 그의 가슴을 눌렀다. 가로등 아래에서 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 또한 자세히 볼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몸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을 수 있었다. 그의 손목은 아직 내 손아귀에 있었고 나는 기계적으로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그 손목을 뒤쪽으로 비틀었고 골절되는 소리와 그의 비명소리가 동시

에 올려 퍼졌다. 나는 몸을 일으켜 나의 길을 갔다. 두어 걸음 가다가 또 총총 걸음을 옮겼다. 내 뒤의 그 사내는 울먹거리며 욕을 퍼부었다. “개새끼, 이 잔인한 놈아!” 나는 결코 그렇게 잔인한 놈이 아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나는 줄곧 아버지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손재주만 우러러봤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이 세상의 최악이 충분한 징벌을 받게 하고 싶었다. 그렇다, 등심의 징벌.

4 등심(等深)

오늘은 남자아이의 열네 번째 생일이다.

나는 일찌감치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았다. 그 빼빼 마른 귀회장은 아직 호텔을 떠나지 않았다. 10시쯤, 매니저처럼 보이는 사내가 프런트에서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다. “귀회장님의 식사를 지금 올려 보내게.” 내가 앉아있는 위치에서 충분히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식당은 일층에 있었다. 종업원이 음식수레를 밀고 나올 때 나는 그를 쫓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음식은 샐러드 한 접시와 달걀 프라이 두 개, 빵 한 바구니 그리고 커피 한 주전자였다. 샐러드와 계란은 랍으로 싸여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5층에 멈춰 섰다. 밖으로 나온 후 나는 복도에 서서 핸드폰을 만지는 척 했다. 종업원은 512호 방에서 멈춰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뜻밖에도 잠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종업원을 안으로 들이지 않고 손수 음식을 방안으로 가져갔다. 종업원이 자리를 떠난 후 나는 512호 방으로 다가가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이 방문은 결코 모리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 안에서 어렴풋이 TV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득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다시 꿈틀거렸다.

로비로 돌아와 보니 원래 내가 앉았던 자리에 중년남성이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나는 이 순간을 숙명으로 여겼다. 그의 옆에 앉은 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나는 필연적으로 그에게 불을 빌렸다. 연기가 내 콧속을 맴돌았고 순수하고 진한 맛이 났다. 나조차도 내 자신이 담배에 그렇게 목말라하는지 몰랐다. 그리하여 나는 금세 머리가 멍하고 현기증이 났다.

오늘 하루, 뻘뻘 마른 귀회장은 어느 젊은 여인과 함께 했고, 배가 고프면 식사를 갖다 줄 사람이 있었고, 자고 싶으면 물론 아무 때나 실컷 잘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시종이나 된 것처럼, 호텔 로비에 우두커니 앉아 그를 대신해 기약 없는 세월을 주시하고 있었다. 세상은 대체로 그러할 것이다. 대부분을 철저하게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절반은 편안히 자는 사람, 그리고 절반은 밤을 지새는 사람. 이 순간도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나는 내 본분을 지키며 내 진영에 머무르고 있다.

나는 그 '555'담배를 반 갑이나 태워버렸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끊임없이 내 앞에 나타나 나에게 불을 갖다 대줬다. 나는 구역질이 났다. 점심과 저녁은 호텔 식당에서 먹었다. 식당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로비와 구분되어져 있었고 안에 앉아 있어도 사방을 훤히 살펴볼 수 있었다.

나는 남자아이의 그림자조차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밝은 날씨가 흐렸다. 호텔 정문의 문틀이 카메라의 파인더처럼 보였다. 프런트의 종업원들의 눈이 나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 몰랐다. 그들 뒤편 벽면에는 관례적으로 다섯 개의 시계가 걸려있었다. 베이징, 도쿄, 뉴욕, 파리, 런던. 왜 반드시 그 5개 도시여야 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광경을 오래 보고 있자니 점점 졸음이 쏟아졌다. 마치 찰찰 소리 내는 시간 한 가운데에 앉아 분초가 사망으로 튀는 시간의 물보라 속에 몸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저녁 8시경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이 입원하셨어.”

그 때 나는 다소 건방지게 호텔 로비의 소파에 반쯤 드러누운 채로 앉아 있었고 원래 이미 외로움에 찌든 마음이 그 불행한 소식에 더욱 의기소침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심각한 상황이야?”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아내는 우물거렸다. “의사가 또 혈압이 문제라고 하는데, 조금해할 거 없어. 아무래도 당신에게 알려줘야 할 거 같아서.”

전화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문 일이다. 상위엔은 침묵한지 이미 오래되어서 나는 상위엔이 한 마리 개로서 아직도 울부짖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렸다.

“그래 알았어, 내일 집으로 돌아갈게.” 내가 말했다.

그렇게 결정을 일단 하고 나서 나는 바로 일어서서 방으로 돌아갔다. 원래 나는 로비에서 밤 12시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열네 살’이라는 나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경계라고 고집스럽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규정에서 이 경계를 넘어서면 부분적인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나는 그 경계를 돌파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 나는 자신의 가설이 완전히 황당무계하다고 느껴졌다. 그 가설은 터무니없고 독선적이자 허무한 것이며 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의 머리에서 나온 경직된 고집이었다.

나는 이때처럼 낙담한 적이 없었다.

방으로 돌아와 내가 한 첫 번째 일은 전화를 들어 호텔의 서비스센터로 연락한 후 나를 대신해 내일 아침 런칭으로 돌아가는 첫 항공편의 티켓을 예약해 달라고 했다. 몇 분이 지난 후 센터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내일 아침 예약이 가능한 첫 항공편의 시간이 10시30분이라고 했다.

“그걸로 할게요.” 나는 무기력하게 대답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모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됐어?” 그녀는 곧바로 내게 물어왔다.

“소득이 없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마 내 판단이 틀린 거 같아.”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다. 마치 내게 ‘등심’의 침묵으로 회답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모리, 지금 그 귀회장이 바로 내 위층에 있어.”

“그 사람 얘기를 왜 꺼내?”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침울했다. “샤오둥, 네 속셈이 대체 뭐야? 난 그와 저우샹의 가출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내게 아무것도 얘기해주지는 않으면서.”

나는 허탈했다. “좋아, 얘기해 줄게. 나는 저우샹의 가출이 이 귀회장이라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어째서? 저우샹이 왜 그런 일을 저질러?”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어?” 나는 내 자신에게 혼잣말하는 듯한 착각을 주기 위해 핸드폰을 내 귀에서 조금 떼어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알려주지, 아이는 복수를 하려는 거야. 저우샹은 이 남자가 그의 모친을 모욕했고 그의 부친을 떠나게 했으며 그의 가정을 박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핸드폰 너머로 다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뒤, 그녀가 오열하는 것

이 들렸다.

“물론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추리에 불과해. 아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샤오둥, 내가 어떡해야 해?” 그녀는 흐느꼈다. “너는 내 처지를 이해해줘야 해, 저우요젠은 아무런 생활능력도 없고 이 가정은 나 혼자서 모든 걸 짊어줘야 해. 이런 시대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래, 저우요젠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 하지만 그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떠나버릴 줄은 몰랐어 - ”

“너는 저우요젠이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어떡할 거라고 생각했니?”

그녀는 멈칫했다. “몰라, 모르겠어, 난 그런 상황을 생각할 용기가 없어.”

나는 또 담배가 그리웠다. 하지만 담배를 꺼내 든 후에야 불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 나는 불을 붙일 수 없는 담배 냄새를 힘껏 맡았다. “모리, 내게 말해 줄 수 있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3년 전 너는 왜 나를 찾아왔어?”

“왜냐고?” 그녀는 돌연 소리를 질렀다. “사랑 받고 싶었기 때문이야!”

“저우요젠의 사랑이 너에겐 부족했던 거니?”

“남편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그의 사랑은 부족해.”

한 순간에 나는 옛처럼 녹아 내렸다. 그녀는 반복해서 ‘이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럼, 이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그렇다, 그건 우리의 대학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시대다. 그 때, 모리는 십자가를 가슴에 걸고 있던 여학생이었고 도의를 위해 흥분되고 격앙된 병자의 반려가 될 수 있었던 여학생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녀는 한 회사의 사장을 하면서 한편으론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다.

“샤오둥, 나를 비난하지 말아줘, 최소한 지금은……” 그녀는 핸드폰 너머로 자기도 모르게 흐느낌과 통곡 사이에서 나오는 거친 숨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난 방금 아들을 잃어버렸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물론 그녀를 비난할 생각이 없었다. 인간은 모두 삶을 훔치고 있다. 그녀는 그저 불행히도 발각되어버린 것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이 시대에, 나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강단에서 입에 발린 말로 수업을 하고, 침대 위에서는 여자들을 연주하여 소리를 낸다. 유일하게 격분하고 욕된 말로 이 시대를 비난할 권리가 있는 그 사람, 바로 그가 실종되어

버렸다.

10시30분 비행기니 나는 8시경 호텔에서 출발해야 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수염을 깎고 샤워한 후 어깨에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섰다. 프런트에서 결제하고 있을 때, 그 뻘뻘 마른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총총걸음으로 호텔 정문으로 향했고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밖을 내다보니 황동으로 만들어진 정문장식이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그는 호텔 정문 밖의 계단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곧바로 뛰어나갔고 아직 그의 뒤에 접근하지 못했을 때 찾길 맞은편에 있는 남자아이를 보았다. 찾길은 왕복 8차선이었고 그 때 횡단보도는 빨간 불이었다. 남자아이는 양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고 두 손을 가슴에 품고 그 위에 옷 하나를 덮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인도 위에 서서 빨간 불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태양 아래에서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찾길에는 차들이 별로 없었고 어떤 행인은 약삭빠르게 무단횡단을 했다. 하지만 그는 교통질서를 제대로 지켰다. 녹색 불이 켜지자 나는 내가 있는 길가에서 그를 향해 정면으로 걸어갔다. 만약 나의 40여 년 세월에서 영원히 잊혀 지지 않을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순간, 강렬하게 무엇인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우연하게 마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를 희비가 교차하게 만들었다.

남자아이의 걸음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했고 나와 도로의 한가운데서 마주쳤다. 서로 지나치려는 순간, 나의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가 전혀 저항할 수 없는 힘과 기술로 그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세웠다. 그가 몸부림쳤지만 나의 팔은 강철과 같았다. 나의 다른 손도 이미 옷 아래 포개진 그의 두 손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그를 제압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너는 오늘 이미 열네 살이 되었어.” 나는 낮은 소리로 말하고는 그의 얼굴은 보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그를 끌고 갔다.

나의 말이 그의 몸부림을 단번에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한 마리 짐승새끼를 끌어안고 있는 듯 힘을 풀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 감탄했다. 어른은 항상 아이를 붙잡아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규칙이 그야

말로 정확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소 비틀거리며 나를 따라 찾길의 맞은편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찰싹 붙어 어깨동무하여 곧장 앞으로 걸어갔다. 아침식사를 파는 길거리의 한 노점 앞에서 나는 손에 힘을 뺐다. 그의 어깨가 내 팔 밑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옷으로 감싼 그의 두 손은 여전히 내 손에 제압되고 있었다.

“나에게 넘겨 줄래?” 나는 상의하는 듯한 말투로 그에게 말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완전히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가 매우 이성적인 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미 없는 반항을 하지 않았다. 그가 두 손을 밖으로 꺼냈고 옷과 그 아래에 감췄던 물건이 내 손 위로 떨어졌다. 불 필요도 없이 손의 감각만으로 그것이 한 자루의 주머니칼이란 걸 알 수 있었다.

노점에서는 유탄오(油條)⁴⁾와 두유를 팔았다. 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그는 어깨를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 비록 나는 내 손에 들어가는 힘에 주의했지만 그를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때 비로소 나는 그를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는 검은 브이넥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가늘고 긴 팔다리에 마르고 키가 컸으며 이마에는 몇 개의 여드름이 나 있었다. 그가 열네 살이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면 나는 그의 나이를 정확히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그 연령대의 아이들은 어리석은 면이 있게 마련이다. 그들은 인생의 회색지대에 있으며 강을 건너는 것처럼 이쪽과 저쪽 연안 사이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 남자아이는 모리를 닮았고 동시에 저우요젠도 닮았다. 그 사실이 내 코를 찡하게 만들었다. 필연 그도 진지하게 나를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마음속으로 몇 년 만 지나면 눈앞의 이 작은 사내는 상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물었다. “누구세요?”

“너의 삼촌이야.” 나는 유난히 진지한 태도로 대답했다.

“저는 아저씨를 몰라요.”

“그럴 거야. 나도 너를 몰라.” 내 눈에 눈물이 솟구치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를 알고 있어.” 그 순간 나는 매우 중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같은 대학을 다닌 동창이자 친구야.”

4)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길쭉하게 만든 후 기름에 튀긴 음식. 주로 아침 식사로 먹음

나에겐 좌절과 고난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 중년남성의 진실함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대면하고 있는 것은 한 시대가 다른 한 시대에 진 빛이었다. 우리 세대가 붕괴되어 버려서 비로소 이 아이가 주머니칼을 가슴에 품고 길거리로 나선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다.

아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목소리에 거의 내 마음이 드러났다. 그는 나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느꼈다. 그는 유타오가 담긴 접시를 내가 있는 쪽으로 들이밀고는 혼자 고개를 숙이고 두유를 마셨다.

“저를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가 물었다. 변성기가 된 그의 목소리는 웅웅 울렸고 성인남성의 목소리 보다 더 묵직하게 들렸다.

“직감으로.” 내가 이렇게 그에게 대답했지만 전혀 얼버무릴 생각은 없었다. 단지 ‘직감’만이 이 상황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전 다시 올 거예요.” 그는 매우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난 또 직감에 따라 너를 제지하겠지.” 나는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모리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그에게 건넸다.

아이는 전화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귀에 갖다 대고 있었다. “엄마, 나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 괜찮아, 그만 울어.” 그리고는 또 가만히 듣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핸드폰을 나에게 건네줄 때까지 혼자 유타오를 두유에 적셔 먹었다. 모리가 핸드폰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샤오동 지금 어디야?”

“아무 일 없어. 우리 이제 돌아갈 거야. 순조롭다면 오후에는 란청에 있을 거야.”

그녀는 계속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이는 꽤 많이 먹었다. 두유 한 사발에 유타오를 네 개나 먹었다. 그 식사량이 나의 긴장을 누그러뜨려줬다. “자, 우리 그만 가자.”

쓰레기통 옆에, 나는 아이 옷 속에 있던 흥기를 버렸다. 나는 그 칼이 어떤 상해를 가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지를 확인해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 문제들은 내게 혐오스러운 느낌만을 줄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옷을 돌려줬다. 화학섬유로

만든 흰색과 빨간색의 줄무늬가 엇갈린 교복으로 칼 한 자루를 그 안에 집어넣고 다니기엔 불편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나는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멈춰 섰다.

“요 며칠간 어디서 지냈니?” 내가 물었다.

“근처의 여관에서요.” 스니커즈를 신은 아이의 두 발은 번갈아 가며 무료하게 땅 위를 문지르고 있었다. “하루 밤에 25위안 밖에 안 해요.”

“무슨 방법으로 그 남자를 호텔 밖으로 불러낸 거지?”

“아주 간단해요.” 그는 웃었다. 다소 우쭐해져서는 다 큰 남자아이의 천성을 드러냈다. “저한테 엄마 핸드폰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집에서 가져 온 그 핸드폰을 끄집어냈다. “핸드폰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모리의 아들이라고 하고는, 엄마와 같이 시안에 왔는데 엄마가 호텔 앞에서 넘어져서 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똑똑하구나.” 나는 침울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 모든 게 네가 계획한 것이구나.”

그는 입을 오므리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을 띠었다. “그렇게 칭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너는 왜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았지?”

“뭐라고요?”

“너는 어제 행동에 옮겨야 했어.”

“왜요?”

“오늘이면 너는 이미 만으로 열네 살이야.”

“오늘이 바로 제가 원하던 날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다. “왜? 너도 알다시피 어제가 지나면 같은 행동이라도 법률적으로 다른 결과를 책임져야 해.”

“나는 바로 내 자신이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두 손을 가방끈에 찢러 넣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내가 한 일이 어른들이 보기에 그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경악했다. 나는 놀랍게도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직감’이 원래 이미 더럽

고 추악해져 내가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교활한 방향으로 단정 짓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눈앞의 이 남자아이가 오히려 떳떳하고 대담하게 응분의 책임을 짊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와 비교해보면, ‘40세’라는 경계 너머에 서 있는 나야말로 직감에 의존해 영원히 책임을 거부하고 영원히 철들지 않는, 경박하고 열등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경계의 다른 편에 서 있는 이 남자아이는 오히려 당당하고 정중했다. 그는 일종의 ‘고풍(古風)’적인 면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기개는 이미 우리와 얼마나 많은 시대를 동떨어져 있는가? 나는 이 문제를 좀더 생각해보고 싶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 옆에는 아이 하나가 서 있었고 나는 거리에서 뉘를 잃고 멍하니 서 있을 수는 없었다.

“너는 뒷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나는 어렵게 질문을 꺼냈다. 동시에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 남자아이의 목표물이 되지 않아 다행이었다 — 이 또한 완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니요.” 그는 나를 향해 웃었지만 매우 엄숙했다. “그 남자가 엄마의 엉덩이를 때렸을 때 무슨 뒷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는 과연 저우요젠의 아들이었다. 나는 마치 언제든 방어할 겨를도 주지 않고 침묵 속에서 박차고 일어나 생활 속의 모든 불의에 대해 통렬한 질책을 하는, 너그럽지 않은, 조금도 너그럽지 않은 그런 저우요젠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해.”

그는 말이 없었다. 택시 한 대가 우리 앞에서 멈췄다. 택시에 올라타자 그가 비로소 갑자기 나지막이 이야기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집을 떠난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할 길이 없었다. 그의 친구 리우샤오동이 내게 말했었다. 그는 아빠를 이해하고 아빠의 그런 행동만이 비로소 생활과 등심이 된다고 했다고. 그럼 그렇다. 내가, 모리가, 우리가 ‘이 시대’라는 이유로 다른 수단을 찾을 때, 우리가 연이어 두 차례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이런 또 다른 논리가 성립한다. 즉, 경악이 만들어낸 세상은 결국 같은 정도의 경악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운명에서 비롯된 상처는 결국 운명과 등심인 행

동으로써만 보상할 수 있다.

나의 대답을 듣지 못하자 남자아이는 혼잣말을 하듯 한 마디 중얼거렸다. “아까 엄마가 전화로 내게 말했어요. 아저씨는 엄마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시였다. 나는 탑승을 포기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빠른 항공편이 11시40분 출발이었다. 남자아이는 아무런 신분증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에게 티켓을 사줄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다시 사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공항 공안(公安)사무소에 내 학생의 아버지가 있어 그를 찾아냈다. 그리하여 남자아이는 자신의 신분증 번호만 구두로 불러줬고 우리는 순조롭게 탑승구로 들어가게 되었다.

탑승 전 나는 모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었다.

이륙 후 나는 남자아이에게 그의 부친 얘기를 꺼냈다. 대학졸업 후 그 여름의 행동으로 인해 저우요젠은 역사문헌소로 배정이 되어 하루 종일 흰 서적더미에 파묻혀있었다. 내가 알기로, 저우요젠은 영원이 그러한 형상에 고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몸에 바짝 들러붙는, 원래 흰색이었는데 몰라 볼 정도의 러닝은 가장자리가 닳아 헤진 갈색 허리띠 속으로 쭈셔 넣고 고장 난 지퍼가 갑자기 세상을 멈춰버리는 그런 형상 말이다. 하지만 이 순간 구름 속에 있으면서 나는 진심으로 저우요젠의 아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의 완전한 부친의 형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나는 아이에게 저우요젠은 당시 동기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단지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졌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저우요젠이 정의감과 수치심이 있는 사람이며 그의 생리적인 지병은 사실 순결한 생명이 세균이 들끓는 세상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자아이는 점점 내 이야기에 심취했다.

“어때?” 나는 그에게 약속을 시도했다. “우리 함께 아빠를 찾아볼까?”

“어떻게요?”

“직감으로.” 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이미 내 자신이 기름때가 낀 직감으로 덧칠해져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니? 나는 그렇게 너를 찾아낸 거야.” 내 말에는 더 이상 사람을 설득시킬 그럴듯한 이유가 없

었다. 난 단지 이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니?”

그렇다, 나는 이 공중에서의 약속이 최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나는 스튜어디스가 자꾸 불시에 다가와 나를 쳐다본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다소 망연자실해 있었다. 난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곧 깨닫게 되었다. 원래 내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던 담배가 스튜어디스를 불안하게 한 것이다. 물론 그 담배는 단지 허장성세의 도구로 내 자신도 언제 밖으로 나오게 될 건지 몰랐다. 그 담배는 물론 불을 댕기지 못했다. 우선 나는 그 담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담배는 확실히 그녀가 경계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불을 댕기기 직전의 형세 또한 더욱 불안하게 할 만한 이유가 되었다.

한 시간 후, 모리는 공항 도착장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남자아이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손으로 모친의 머리를 가볍게 한번 통기기도 했다. 그것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남자아이가 자신의 모친을 ‘가엽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자 사이의 어두운 곤경에 대해서 실로 슬프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말들은 내가 남자아이에게 줄곤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그의 엄마를 위해 어떻게 기회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몰랐다. 그녀 자신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기회가 정말 있을지, 그리고 그녀가 정말 자신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앞에 앉아있는 모자를 보고 있었다. 재떨이 옆에 담배 한 갑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지금 이 장면에서 직감적으로 우리의 공간적 미에 어울리는 자리는, 중년남성이 운전석에 앉고 중년여성이 조수석, 그리고 아이는 뒷자리에 앉는 것이다. 세상 모든 장면의 공간 속에서는 항상 미묘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모리가 차 안의 노래를 틀었다. 뜻밖에도 그룹wham의 ‘Careless Whisper’ 가 흘러나왔다. 나의 숨결이 한결 편해졌다. 어찌됐건, 그나마 그녀가 우리 그 시절의 어떤 낭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리에게 나를 병원에 내려달라고 했다. 그녀는 나와 함께 들어가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 집사람이 안에 있어.” 내가 말했다.

물론, 지금 이때 내 집사람이 병원에 있을 리가 없었다. 공무원인 그녀는 지금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혼자 병실에 누워있었다. 상황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병상 옆에 앉아 학술회의에 참가했다가 금방 돌아왔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학술회의?” 아버지는 마치 세상에 그런 것도 있냐는 듯한 말투였다. 아버지가 물었다. “어떤 내용이지?”

“등심류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얼버무렸다.

아버지는 더 추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간헐적으로 나에게 공허한 소리들만 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봐라, 정말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말도 많아져서 사람들이나 귀찮게 하고.” 아버지는 강조했다. “나 이전엔 이러지 않았어. 최고의 바이올린처럼, 사실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지.”

그렇지 않다고 여긴 나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바이올린이 소리를 내지 못하면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게 웃었다. 작은 소리로 웃다가 갑자기 병상에서 푹푹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가 뭘 알아? 내가 말한 소리는 네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뱃속의 소리야. 네 뱃속의 말이 너무 많아서 조만간 네가 숨이 막혀 죽을 거야!”

아버지의 눈이 뒤집혀 흰자위가 보였다.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고 나는 두려움에 소리는 질렀다. “아버지! - ”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간호사는 허겁지겁 나를 도왔다. 그녀들은 힘을 합쳐 아버지를 제압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순간에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녀들의 시도를 헛수고로 만들었다. 아버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움츠렸고 손 하나만을 내놓고 허공을 내저으며 귀찮은 듯 우리들을 쫓아냈다.

“가, 모두 가버려, 나 좀 조용히 내버려둬.” 아버지가 말했다.

병원을 나와 나는 빈허강 길을 따라 돌아갔다. 나는 의기소침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절망스러운 자성에 빠지기도 싫었다. 나는 이번 시안 여정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죄를 전가시킨 것인지 계산하고 싶지 않았다. 불혹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의아하게도 나는 갑자기 『중국독립시인시선』이 있는 그 카페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그 책의 장대한 느낌 혹은 영수증과 관련된 곤란함을 경험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은 것 같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딱 멈추지 않았다 -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가 그 사실을 증명했다. 진동을 동반한 벨소리가 울렸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내 주머니가 노래를 부르며 부르르 떠는 게 제멋대로 마술이라도 부리는 줄 알았다.

물론 아니었다. 그건 남자아이가 투항하듯이 나에게 건넨 핸드폰이었다. 내가 그것을 꺼내 눈앞에 들었을 때 우선 생각난 것은 그것이 항공규정을 어겨 내내 켜져 있는 채로 벨소리가 금지된 하늘을 날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 후 나는 화면에 나타난 발신자를 보았다. 귀회장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아야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그건 항공규정처럼 무조건 지켜야하는 규정은 아니었다. 망설이는 사이에 전화가 끊겼다. 하지만 곧이어 또 벨소리가 울렸고 나는 수신버튼을 눌렀다. 상대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욱더 아무 말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는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았다.

“모리?” 그 사람은 분명 모리처럼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고 나는 그의 목소리조차 뻘뻘 마르게 느껴졌다.

“아니오.” 내가 말했다. 비록 세 글자의 단어였지만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목소리가 별안간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성의 온화한 중저음에 침착하고 냉정하며 자신이 있었다. 내 자신이 되돌아온 것 같았지만 오히려 나는 영혼이 몸을 떠난 듯한 느낌이었다.

“당신 누구야?” 뻘뻘 마른 목소리에서 그리 뻘뻘 마르지 않은 나태함이 느껴졌다.

나는 일종의 복원을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대답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그녀의 남편이요.”

“아 - ” 그는 뭔가 문득 깨달은 듯한 신음을 냈다. “아 - ” 한참 간격을 두고 그는 또 확정의 탄식을 했다.

나는 이미 멈출 수가 없었다. 계속 말을 하려는 욕구가 솟아올랐고 그것은 분명 내 아버지의 눈에는 내가 구제할 길이 없는 쓸모없는 바이올린처럼 보였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 당신은 내 아내를 욕보게 했고, 우리 가정을 파탄 냈고, 우리 아들이 집을 떠나게 만들었어.”

나는 이게 매우 어리석은 짓이란 걸 알았지만 그 어리석음이 내게 쾌감을 가져다주었다.

“맹세컨데,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아 - ” 그 인간은 또 신음 아니면 탄식을 했다.

“이봐, 잠깐 기다려.” 그가 말했다. 그가 도리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그는 그의 핸드폰을 다른 손으로 받아 들었을 뿐이었다.

“당신이나 기다려!” 나는 길거리에서 서로 뒤엉켜 싸우는 건달처럼 되받아쳤다. 소리가 잠시 멈춘 후 핸드폰 너머로 한 마디 외침이 들려왔다. “샤오둥!” 그가 말했다. “네가 맞지? 네 목소리인 걸 알겠어.”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고 차들이 얽혀있는 길가에 서 있었다. 나도 그 목소리가 누군지 깨달았다. 그였다. 내 오래 전 친구, 줄곧 세상을 향해 험상궂은 고향을 질러대던 그 사내였다.

나는 길가에 선 채로 그 인간이 다시 내게 쉴 새 없이 지껄이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죽히 한 시간은 말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그가 현재의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했다.

“나는 귀회장을 없애려고 세 번이나 시도했어.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는 매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알아? 제갈량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데 능한 것처럼, 지금 나는 그의 사람이 됐어. 나는 그가 우리보다 모리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는 그가 ‘우리’라고 한 것을 알아들었다.

“샤오둥, 세상은 변했어, 그거 아니? 세상이 변했다고!”

그는 그 해 식당에서 시찰하고 있던 교장을 질책했던 것과 같이 나를 향해 포효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쉴 새 없이 지껄이는 그 인간을 미친놈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남아있는 이성으로 그를 설득했다. 심지어 그의 의중을 타진했다.

“저우선생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데리러 갈게,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그를 ‘저우선생’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동시에 나는 앞으로 다시는 내가 고집을 부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철저한 복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르겠다.

세상은 실로 끝이 없다.

“바보처럼 굴지 마, 샤오둥,” 그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나의 이름을 불렀고 그래서 그가 영원히 세월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전히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모습은 철저히 과거와 같다고 강조하려는 것 같았다.

“내가 왜 돌아가? 난 지금 아주 좋아, 자, 들어봐 - ”

그가 나에게 들려주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현재 속세를 떠난 듯 스스로 산속에 들어가 산다던 이 인간은, 그 순간 손에 쥔 핸드폰을 높이 치켜들어 마이크를 최대한으로 세상의 소리를 향해 조준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은, 짹짹 새가 우는 소리처럼 감미로운 여인의 목소리였다. 아니면 여인의 목소리처럼 감미로운 새소리였을까?

가자, 결국 영원히 이 길가에 서 있을 수는 없다.

란청시은 한 줄기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뉘어져 있었고 내가 강의 남쪽에서 다리를 건너 강의 북쪽으로 향할 때 나는 그저 다시 한 번 ‘고비는 넘기는’ 심정이 들었다.